

정책연구  
2025-01

#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이정민

한국노동연구원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론 : 비구직 청년 연구의 중요성 .....	1
제1절 ‘쉬었음’ 인구의 급증 .....	2
제2절 청년의 비구직 장기화 가능성 .....	5
제3절 청년 비노동력화 연구의 필요성 .....	7
제4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	9
제2장 비구직 청년 관련 문헌연구 .....	10
제1절 ‘문제적’ 청년 니트와 ‘쉬었음’ 청년 .....	10
제2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만드는 배경 요인 .....	13
제3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연구의 방법론 .....	15
제4절 소결 : 선행연구의 함의와 본 연구의 지향점 .....	17
제3장 비구직 청년의 현황 .....	20
제1절 비구직 청년의 조작적 정의 및 범위 .....	20
제2절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	22
1. 데이터 .....	22
2. 관심변수 및 분석 방법 .....	22
3. 분석 결과 .....	23
4. 요약 .....	47
제3절 비구직 청년의 동태적 특성 .....	49

1. 데이터 .....	50
2. 관심변수 및 분석 방법 .....	50
3. 분석 결과 .....	51
4. 요약 .....	56
제4절 소 결 .....	57
제4장 비구직 청년의 잠재 하위집단 탐색 .....	60
제1절 연구 방법 .....	60
1. 데이터 .....	60
2. 분석 모형 .....	66
제2절 분석 결과 .....	68
1. 요인 분석 결과 .....	68
2. 잠재집단 분석 결과 .....	68
제3절 소 결 .....	73
제5장 결론 : 비구직 청년의 정책과제 .....	7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75
제2절 정책제언 .....	77
1. 청년의 비노동력화에 대한 세밀한 문제 정의 및 진단 필요 .....	77
2. 비구직 청년 맞춤형 정책 프로세스의 명료화 .....	78
3. 비경제활동 관련 조사문항 개선 .....	81
참고문헌 .....	83

## 표 목 차

〈표 1- 1〉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요약 .....	3
〈표 3- 1〉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관심 문항의 내용 .....	23
〈표 3- 2〉 19~39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학적 분포(원자료) .....	25
〈표 3- 3〉 19~39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학적 분포(가중치) .....	28
〈표 3- 4〉 비경제활동 청년의 구직의사와 주요 활동상태 .....	32
〈표 3- 5〉 비경제활동 청년의 이전 직장 퇴직 및 이직 사유 .....	36
〈표 3- 6〉 비경제활동 청년 상위 15개 그룹(동부) .....	38
〈표 3- 7〉 비경제활동 청년 상위 15개 그룹(읍면부) .....	39
〈표 3- 8〉 배우자 기혼 여성 집단의 구직의사 및 활동상태 .....	42
〈표 3- 9〉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 및 활동상태, 비구직 사유 .....	43
〈표 3-10〉 동태분석 관련 KLIPS 관심변수 .....	50
〈표 3-11〉 전년도 상태 대비 차년도 경제활동 상태 이행 비율 (19~39세 평균) .....	53
〈표 4-1-1〉 관심변수(연속) 기술통계 .....	62
〈표 4-1-2〉 관심변수(범주) 기술통계 .....	65
〈표 4- 2〉 잠재집단 모형의 적합도 지수 .....	69
〈표 4- 3〉 3집단 모형의 잠재집단 비중(그룹별) .....	70
〈표 4- 4〉 잠재집단별 추정된 문항 응답 확률 .....	71
〈표 4- 5〉 잠재집단 소속 확률에 대한 공변변수별 영향력(집단 3 대비 집단 1) .....	72
〈표 4- 6〉 잠재집단 소속 확률에 대한 공변변수별 영향력(집단 3 대비 집단 2) .....	73

## 그림목차

[그림 1- 1]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	5
[그림 1-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쉬었음 비율 변화 .....	6
[그림 3- 1]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령 분포(전체 · 남 · 여) .....	24
[그림 3- 2] 연도별 청년 비경제활동 유형 변화 .....	35
[그림 3- 3] 배우자 기혼 여성 집단과 미혼자녀 집단 연령 분포 .....	40
[그림 3- 4] 배우자 기혼 여성의 구직의사 · 구직가능성 교차비율 .....	41
[그림 3- 5] 연도별 미혼자녀 비경제활동 청년의 특징 변화 .....	45
[그림 3- 6]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 · 구직가능성 교차비율 .....	46
[그림 3- 7]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 · 쉬었음 교차비율 .....	47
[그림 3- 8] 연령 도달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분포 .....	51
[그림 3- 9] 경제활동 상태 이행과정(19~39세) .....	53
[그림 3-10] 청년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상위 20개 시퀀스 .....	54
[그림 3-11] 시계열 클러스터링 타당도 지표 .....	55
[그림 3-12] 클러스터별 경제활동 상태 평균경로 .....	56

## 요약

‘쉬었음’ 인구로 대표되는 청년 비노동력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하지 않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29세의 인구는 2015년 약 938만 명에서 2024년에 811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 청년 ‘쉬었음’ 인구는 30.7만 명에서 42.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의 관측은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구성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유추하게 하지만, 횡단자료의 단일 문항에 의존한 집계만으로는 비구직 청년의 이질성과 동태적 변화를 데이터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들의 하위집단 특성을 세분화하고 근로의사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분해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장기 비노동력화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추론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비구직 청년들의 하위집단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비구직 청년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특히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 현상을 청년 비노동력화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기존의 일률적 접근법으로는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모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쉬었음’ 인구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청년 일반의 하위 프로파일을 횡·종단 측면에서 새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연구한 선행 문헌들을 분석하

였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유래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쉬었음' 문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청년 비경제활동의 배경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법론 등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연구대상의 정의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구직 청년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청년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비구직 상태라 하더라도 문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추정하고 예방적 대응 여부 또한 프로파일링에 근거해야 함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잠재집단 분석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바탕으로 19세에서 39세 사이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인구적 특성의 현황과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직 청년 인구는 연령 분포가 전반적으로 이중봉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에 각각 밀집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남성은 20대 중반에, 여성은 혼인과 출산 등으로 인해 30대 중반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10년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 다수가 과거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장을 떠난 주된 이유는 개인적 및 가족적 사유, 임금과 근로조건 불만족 등 자발적인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직장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청년도 30%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특성상 교육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세는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구성 성분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졸업생 미혼자녀 집단을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볼 유인이 많

다. 분할표를 활용한 교차분석 결과 비경제활동의 60%가량은 크게 세 집단의 존재로 설명되었다. 부모와 함께 살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21.7%), 학업을 마친 뒤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23.9%), 학업을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또는 4년제 졸업자인 남녀(16.8%)이다. 졸업생 미혼자녀 집단은 구직의사를 갖고 있는 인원이 절반 이상인 면이 긍정적이거나 최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집단 내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쉬었음 인구는 10% 내외로,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기타 사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40%에 한참 못 미친다. 단순히 '쉬었음'이라는 지표를 벗어나 활동상태코드와 비경제활동 기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직의사가 없는 쉬었음의 비중 또한 20% 내외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집중할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KLIPS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규모의 측면에서는 만 26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화되고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청년층은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쉽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 전후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26세보다는 조금 뒤인 28세까지 전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경제활동 상태별 유입과 유출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2년이 존재한다. 경제활동 상태의 상위 20개 시퀀스를 살펴보면, 청년의 상당수가 25~26세 기점에 안정화 과정을 거쳐 취업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다년간의 실업을 거쳐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는 집단은 한 번도 취업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인데, 주의가 필요하다. 1,000명의 표본에 대해 시계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결과는, 청년 집단에서 최소 4가지 유형(조기 취업 및 안정화, 반복 이·취업 후 안정화, 반복 이탈 후 비노동력화, 번아웃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구직 청년 집단은 단일한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서

하위집단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단순 관측치 비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잠재적 하위집단들을 파악하고, 비경제활동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KLIPS 19차 자료의 경제활동상태코드와 청년층 부가조사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자존감, 사회적 지지, 사회 안정성 인식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따라 청년이 경제활동 취약성이 높은 그룹에 포함될 확률이 변화하는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가미된 다층 잠재집단 모형을 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층 3잠재집단 모형의 분석 결과와 경제활동상태코드를 비교한 결과, 실업, 비경제활동 청년은 잠재집단 2(취업취약)에 소속될 확률이 높고, 취업 상태인 청년은 잠재집단 3(취업강점)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잠재집단 1의 경우, 제3장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포착되었던 기혼 배우자 여성 집단과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졌다. 각 잠재집단의 소속 확률에 공변량이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이 고학력일수록, 첫 일자리에서 전공과 업무내용 간의 불일치를 크게 느꼈을수록,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에 관심이 많을수록 잠재집단 3(취업강점) 대비 잠재집단 1(기혼 배우자 여성) 또는 2(취업취약)로 소속될 승산비가 높아졌다. 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고 본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미래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주관적 자신감이 높을수록 잠재집단 3 대비 잠재집단 1에 소속될 승산비가 더 낮아졌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요소는 잠재집단 1의 승산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잠재집단 2에서는 소속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종단적 측면에서 청년 비노동력화의 문제를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정책 프로세스를 “예방적 개입” 단계, “장기 억제화” 단계, “문제 해소” 단계와 같이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각 단계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연구와 제반 조건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경활인구 대상 문항이 갖고 있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 1 장

### 서론 : 비구직 청년 연구의 중요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는 외생적 충격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려는 구직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섀도우 상황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듯이, 한국에서 몇 차례 발생한 청년 실업률의 급증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 변화에 기인한 후행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기업들이 채용시장에서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한국은행, 2025), 공채보다 수시·상시 채용의 비중을(이상준 외, 2023) 늘리고, 일반 역량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채용의 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등, 경제적 외부 충격들이 촉발해 온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청년의 구직활동 난이도를 높여 왔다. 이에 더불어 AI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충격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대응은 앞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에 또 다른 난관을 만들어 낼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본 장에서는 최근의 ‘쉬었음’ 청년 인구 증가 현상을 조명함으로써, 청년 비노동력화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1절 ‘쉬었음’ 인구의 급증

최근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 측면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쉬었음’ 인구의 증가이다. 이 용어는 통계청에서 매월 수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최근 1주간 주된 활동상태를 묻는 문항의 응답유형으로부터 유래하였다. 학업 및 훈련, 육아 또는 가사, 질병 등 특별한 비구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항에 ‘쉬었음’으로 응답할 것이라 기대된다. <표 1-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5~2024년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2015년 약 159.4만 명이었던 ‘쉬었음’ 인구는 꾸준한 상승세를 거쳐 2024년 246.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의 237.4만 명보다도 크며, 만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일 기간 약 1608.6만 명에서 1617.2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점과 대비된다.

‘쉬었음’ 인구 증가의 기저 원인을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총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가 약 51만 명 증가한 반면, 15~29세에서는 약 11.4만 명 증가하였으니 전체 ‘쉬었음’ 인구 증가에서 고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15~29세 ‘쉬었음’ 인구 증가는 동일 기간 약 12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화라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림 1-1]은 2015년 대비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 인구 증감률을 60세 이상과 15~29세 집단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60세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률과 ‘쉬었음’ 인구의 증감률이 어느 정도 평행한 반면, 15~29세에서는 둘 사이가 교차한 뒤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이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함의한다. 응답에 따르면,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명확한 사유 없이 경제적 비활동 상태(inactive status)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표 1-1〉 연령별 경제활동지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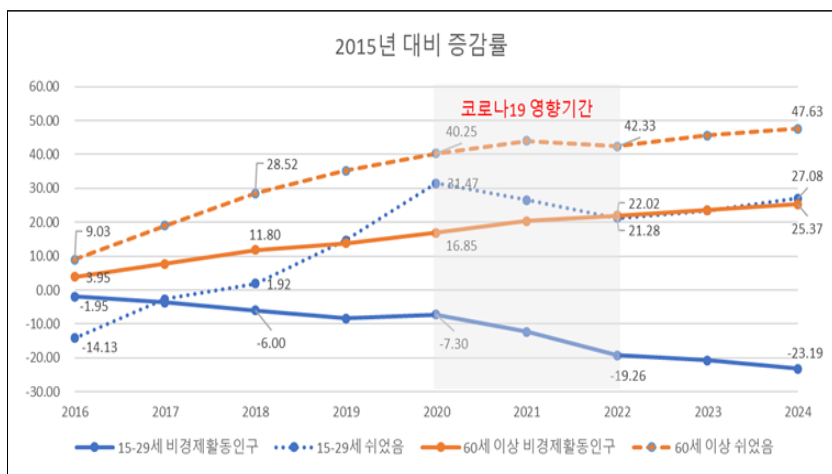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전체	인구 (천 명)	43,239	43,606	43,931	44,182	44,504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16,086	16,187	16,183	16,287	16,318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쉬었음 (천 명)	1,594	1,628	1,736	1,855	2,092	2,374	2,398	2,277	2,351	2,467
	경제활동참가율 (%)	62.8	62.9	63.2	63.1	63.3	62.5	62.8	63.9	64.3	64.5
	실업률 (%)	3.6	3.7	3.7	3.8	3.8	4.0	3.7	2.9	2.7	2.8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	9.91	10.06	10.73	11.39	12.82	14.15	14.30	13.94	14.51	15.25
15~ 29세	인구 (천 명)	9,380	9,363	9,282	9,149	9,060	8,911	8,770	8,567	8,390	8,152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5,127	5,029	4,949	4,837	4,729	4,778	4,567	4,299	4,248	4,162
	쉬었음 (천 명)	307	269	299	313	360	448	418	390	401	421
	경제활동참가율 (%)	45.3	46.3	46.7	47.1	47.8	46.4	47.9	49.8	49.4	48.9
	실업률 (%)	9.1	9.8	9.8	9.5	8.9	9.0	7.8	6.4	5.9	5.9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	5.99	5.35	6.04	6.47	7.61	9.38	9.15	9.07	9.44	10.12
60세 이상	인구 (천 명)	9,288	9,750	10,245	10,776	11,329	11,960	12,613	13,167	13,674	14,147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5,568	5,797	6,035	6,313	6,462	6,696	6,994	7,140	7,287	7,461
	쉬었음 (천 명)	564	620	696	789	870	944	1,008	978	1,037	1,077
	경제활동참가율 (%)	40.1	40.5	41.1	41.4	43.0	44.0	44.5	45.8	46.7	47.3

〈표 1-1〉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0세 이상	실업률 (%)	2.5	2.7	2.9	3.1	3.4	3.6	3.8	2.8	2.6	2.9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	10.13	10.70	11.53	12.50	13.46	14.10	14.41	13.70	14.23	14.44
20~29세	인구 (천 명)	6,256	6,296	6,360	6,390	6,443	6,459	6,458	6,323	6,132	5,920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2,277	2,234	2,297	2,303	2,328	2,503	2,443	2,245	2,163	2,085
	쉬었음 (천 명)	273	245	270	283	332	415	393	362	371	389
	경제활동참가율 (%)	63.6	64.5	63.9	64.0	63.9	61.2	62.2	64.5	64.7	64.8
	실업률 (%)	9.0	9.8	9.9	9.5	8.9	9.0	7.7	6.4	5.9	5.8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	11.99	10.97	11.75	12.29	14.26	16.58	16.09	16.12	17.15	18.66
30~39세	인구 (천 명)	7,705	7,597	7,494	7,378	7,273	7,128	6,984	6,860	6,787	6,803
	비경제활동인구 (천 명)	1,794	1,741	1,661	1,600	1,554	1,569	1,551	1,408	1,287	1,206
	쉬었음 (천 명)	171	176	182	183	213	254	282	260	273	302
	경제활동참가율 (%)	76.7	77.1	77.8	78.3	78.6	78.0	77.8	79.5	81.0	82.3
	실업률 (%)	3.1	3.1	3.3	3.4	3.3	3.5	3.3	2.7	2.6	2.7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	9.53	10.11	10.96	11.44	13.71	16.19	18.18	18.47	21.21	25.04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그림 1-1]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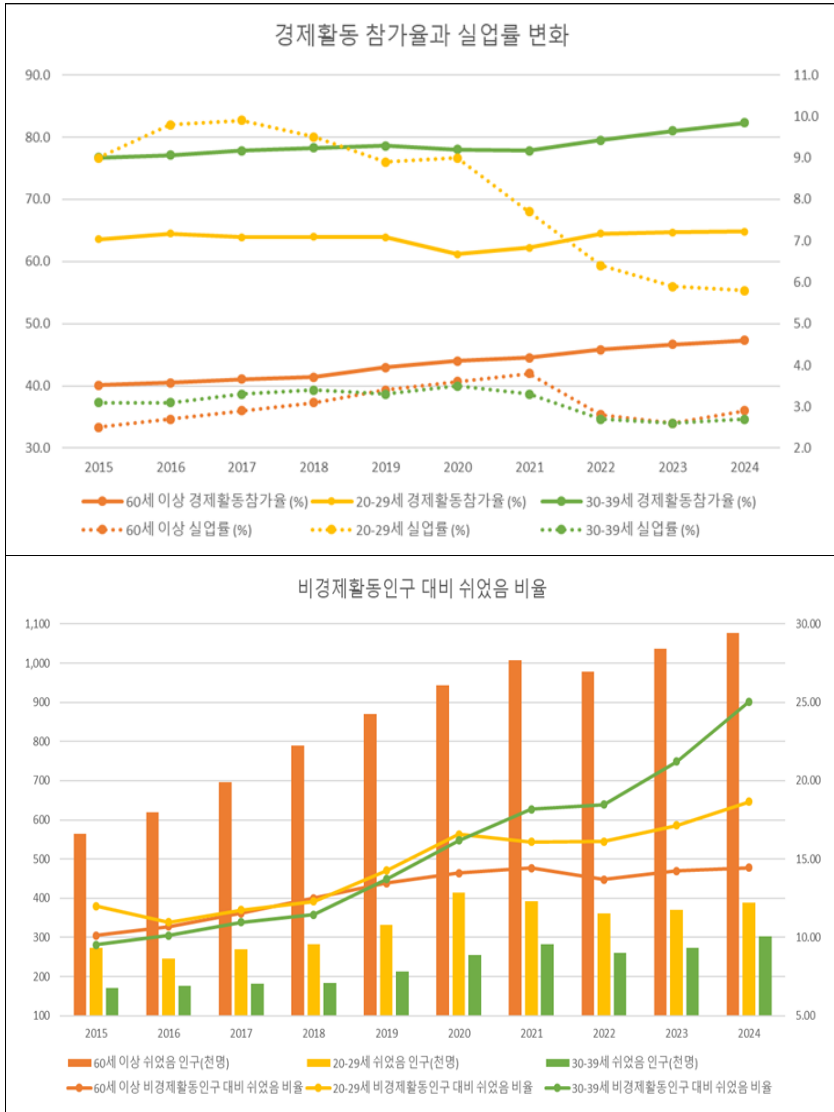
## 제2절 청년의 비구직 장기화 가능성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문제라 볼 수 있는가? 만약 이것이 단기적 경기변동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교육 연한의 증가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면 ‘쉬었음’ 인구는 시간의 경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일례로, [그림 1-2](위)는 최근 10년간 20~29세, 30~39세,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비교 집단에서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청년과 고령층이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30대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실업률은 20대에서 30대로의 이행이 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위의 결과는 동일 코호트의 변화를 추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변화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1-2](아래)는 최근 10년간 20~29세, 30~39세, 60세 이상 인구의 ‘쉬었음’ 인구수와 해당

연도의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 60세 이상의 '쉬었음' 인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막대그래프). 그러나 해당 연령의 비경제활동인구 또

[그림 1-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쉬었음 비율 변화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쉬었음’ 인구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최근 청년 세대, 특히 30대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의 비율은 10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25% 이상을 차지한다. <표 1-1>에서 보듯이, 30대는 인구 감소의 영향과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적다. 반면 2010년대 후반의 5년간 20대 ‘쉬었음’ 인구의 수와, 2020년대 초반의 5년간 30대 ‘쉬었음’ 인구의 수는 큰 차이가 없다(약 24~33만 명 대 25~30만 명).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반복적 횡단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쉬었음’ 장기화 여부를 직접 추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집단 수준에서 한국 청년들이 20대에서 30대로 이행하는 동안 비경제활동 순 인구는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쉬었음’ 순 인구의 변화는 미미하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량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달리 말하면, 세부적인 유량의 흐름까지는 현재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없으나 30대까지 노동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인구의 증가 흐름과는 별도로 ‘쉬었음’ 청년 인구의 규모는 20대에서 30대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 비노동력화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 제3절 청년 비노동력화 연구의 필요성

노동시장이 어려울 때 ‘실업자’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달리, 왜 어떤 청년은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가? 사회 진입의 단계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청년들이 황혼기를 맞이하는 고령층보다 ‘쉬었음’ 형태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의 비노동력화(化) 현상은 실업 문제에 비해 고용 정책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된 역사가 짧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 또한 실업 대책의 연장선에서 찾는 경향이 강했는데, 대체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란 주관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절

대적인 달성이 매우 어렵고,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법이다. 즉, 규범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적시성을 갖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청년 비노동력화 현상의 원인 및 경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고용 정책 연구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리로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진단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타입의 연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및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함으로써, 특정 역할을 갖춘 인재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양성되어야 하는지, 후속 세대가 은퇴 세대를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 사양 산업의 인재들은 어디로 재배치해야 하는지와 같은 이슈들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다룬다.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실업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방법을 고안하는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공급자의 역할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이해해야 해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개인 수준에서의 종단 연구가 청년 고용 정책 분야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수요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잠재적 노동공급자로서의 비구직 청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청년 고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청년들의 구직 단념 및 노동시장 이탈은 한국만의 사례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청년 비노동력화를 더 이상 외생적 충격에 의한 실업의 연장선 또는 파생적 맥락만으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비구직 청년 자체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정의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비경제활동 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청년 하위집단을 특정하기 위한 실증 근거들을 마련하는 연구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 제4절 연구의 목표 및 구성

본 연구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비구직 청년의 하위집단 특성을 세분화하고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비구직 청년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구직 청년의 현황을 인구학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관측하였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행(Transition)에 있어 청년들이 어떤 유사성,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시계열 자료를 통해 시연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사회경제적 지위 및 심리적 속성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비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하위집단 분해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문헌 및 실증 분석의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 비구직 청년 관련 문헌연구

이 장에서는 청년 비노동력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연구 목적, 방법론, 함의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기존보다 포괄적 범위의 비구직 청년을 동태적으로 살피려는 이유를 소결에서 강조하였다.

#### 제1절 ‘문제적’ 청년 니트와 ‘쉬었음’ 청년

과거 청년의 비노동력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일 것이다. 이 개념은 1990년대 영국에서 청년 실업과 장기 구직 단념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근로의욕이 없는 10대 청소년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니트는 정책적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형 청년 니트를 정의(금재호·전용일·조준모, 2007)하고 규모를 추정(남재량, 2006)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에 구직 단념 등으로 노동시장과 단절된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청년 니트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남재량 외, 2011). 청년 니트의 노동시장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정책 연구로는 남재량·김세움(2013)이 있는데, 한국이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중

이 높음을 지적하고 니트 경험이 추후 노동시장에서 중장기적 임금손실을 초래함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니트의 상흔 효과(scarring effects)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2018년이 되어서다.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은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연령 정의 및 범위 설정을 수행하고 국내 청년 니트의 실태 및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청년 니트에 대한 진입 및 탈출 요인을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술적으로 청년 니트는 의도적 단절(자발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경우)과 구조적 배제(노동시장 기회 부족 등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경우)의 이중적 성격으로 논의된다. 즉 일부 청년은 자발적 휴식 차원에서 학업 준비나 자기계발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늦추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취업 실패의 누적과 좌절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쉬는 상태에 놓인다. 특히 한국의 청년 니트는 해외와 달리 고학력 비경제활동자 비중이 높고,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지면 상태의존성이 커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니트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쉬었음’ 청년이다.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이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통계청에서는 현재까지 니트 인구의 집계 대신 비경제활동인구의 최근 1주간 활동을 ‘쉬었음’으로 응답한 통계 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과 정부 정책의 관심 대상으로 새롭게 떠올랐으나, ‘쉬었음’ 청년은 2000년대 이후 각광을 받던 니트와 개념적으로나 관심의 목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다만 니트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속 없이 실업 상태인 인구와 비구직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김기현 외, 2021), 최근의 ‘쉬었음’ 인구는 비구직 니트 중에서도 ‘쉬었음’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된다.

청년 니트에서 ‘쉬었음’ 청년으로 정책적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청년 고용 대책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독립적이고 세분화된 형태로 발전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고무적이다. 관련하여 정책적 배경이 되는

연구도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축적돼 오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 인구의 증가 동향과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보고한 ‘쉬었음’의 주요 사유를 빈도분석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김중욱, 2023; 윤정혜, 2024).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 ‘쉬었음’ 청년의 주를 이루는 대상은 20대 고졸 남성이며, 최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경험이 있는 남성 청년이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가 비중이 가장 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메커니즘을 짐작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갖고 있는 반복횡단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량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청년들이 ‘쉬었음’화(化)하였는지 과정을 추론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설문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을 특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존재하였다. 유민상·김기현·신동훈(2023)은 91명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쉬었음’ 청년이 이질성을 가진 여러 집단의 공통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에서 부침을 겪은 사례가 다수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으로 취업 유형(취업준비 또는 이직)과 적극성 유무(적극 또는 소극)에 따른 4개 집단과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을 가져 니트화 위험성이 높은 1개 집단을 제안하였고, 이 구분법에 따라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기획재정부, 2023). 연구진이 지적했듯이 면접조사의 사례 수가 적고, 면접조사에 응한 사례자의 적극성을 고려하였을 때 유형별 비중이 편향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 연구는 구직 측면에서 ‘쉬었음’ 청년의 기저 원인과 현재 상태, 미래 계획 등을 분석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쉬었음’ 과정을 양상화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니트와 ‘쉬었음’ 청년 모두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우려는 한 시점의 상태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비경제활동 상태의 지속으로 인해 개인이 도태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 혹은 복귀하지 못하는 장기적 문제로 발전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 상태에 오랜 기간 놓인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에 대해 염려하게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유휴 인력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손실과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증가를 고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청년의 비노동력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다양한 개념적 프레임이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일부 연구는 니트 청년을 ‘캥거루족’(부모 등에 얽매어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황광훈, 2024)이나 극단적 사례로 은둔형 외톨이(사회적 고립 상태)와 연결 지어 설명하면서, 청년기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이탈한 존재로 개념화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23).

## 제2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만드는 배경 요인

다수의 선행연구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특성과 그 배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요인으로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수요 부진이 핵심으로 꼽힌다. 낮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며, 빠른 고학력화로 인한 수급 미스매치도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윤윤규 외, 2017).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동일 연령대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진 현상이 관찰되는데(남재량 외, 2011), 이는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많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하느니 차라리 시험 준비나 추가 학력 취득을 선택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향도 보고되었다(이병훈·김종성, 2012). 이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질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않는 배경임이 확인되었다. 김지운(2019)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 상승의 상당 부분이 구직률 하락에 기인하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동 감소가 2012~2017년 사이 청년 실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한국 청년들의 구직 단념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준 사례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배경, 성별, 교육수준 등이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김종성(2012)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4~11차 데이터를 이용해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여성 청년의 경우 취업 기회 구조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직접 구직보다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에 참여하며 경제활동을 늦추는 경향이 있었고, 높은 학력을 쌓을수록 당장의 구직활동보다는 추가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함으로써 구직 단절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 소득수준이나 부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년이 당장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장기간 비경제활동으로 지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당수 '쉬는'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쉼거룩족 형태를 보이고, 가족의 지원은 양날의 검으로서 한편으로는 안전망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문화적 요인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높은 눈높이와 낮은 일자리 만족도가 작용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윤윤규 외, 2017).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하에서 청년들이 임시직이나 저임금 직장을 '차라리 쉬겠다'며 기피하고, 준비기간을 늘려서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합리적' 태도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취업이 지연된 청년 중 상당수가 공무원시험 준비생, 고시촌 거주자 등 취업준비형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고, 일부는 아예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으로 전환되고 있다(김기현·배상률·성재민, 2018).

심리적·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태도 변화에 주목한다. 노혜진(2021)의 심층면접 연구에 따르면, 니트 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은 그 이전 생애에 가정 내 정서적·경제적 지원 부족, 학교 부적응 및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진로 탐색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질병, 가정 문제 등)을 겪거나, 어렵게 취업한 일자리나 인턴직에서 각종 착취와 부당대우를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초기의 실패와 좌절을 겪은 청년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지면서 사회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 비경제활동 청년

들이 “언제든 누구나 미끄러지면 니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의 결과라는 인식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만 모든 ‘쉬는’ 청년이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자기 계발이나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발적 선택형 니트 청년들은 이 기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 해외 경험 등을 쌓으면서 향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김기현·배상률·성재민, 2018). 결국 심리·개인적 특성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내 하위집단마다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 불안정한 정체감, 미래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대인관계 단절과 우울, 은둔형 생활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개인 상담 및 심리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제3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연구의 방법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 분석과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하여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해왔다. 양적 연구의 경우 국가 통계 및 대규모 조사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비경제활동 청년의 규모와 구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구 배경, 경제 상태 등을 파악하고, 이들이 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거나 머무르게 되는 요인을 계량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이다(남재량, 2006; 남재량·김세움, 2013; 김기현·배상률·성재민, 2018; 김유빈·전주용, 2014). 주로 거시적 지표(경제성장률, 청년고용 수요)와 미시적 요인(개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드물게 군집분석이나 경로분석(김지운, 2019)을 수행함으로써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하위 유형 구분과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한편 질적 연구 방법론은 비경제활동인구 연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

다. 심층 면접, 사례 연구, 생애사 분석 등을 통해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들여다본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는 배경 맥락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노혜진(2021)은 니트 경험이 있는 청년 6명의 생애사 인터뷰를 17회에 걸쳐 실시하여, 이들이 어떻게 니트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청년의 가정환경, 학교 경험, 노동시장 초기 경험 등이 니트 상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각자가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는 전략(자기 계발, 제도 활용 등)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혼합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도 늘고 있다. 양적 분석으로 전체 규모와 패턴을 파악한 후, 질적 연구로 원인과 과정을 심층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맥락적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대안 도출에도 풍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등 4개 니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4~6명의 니트 청년 총 19명을 심층면접함으로써, 양적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니트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애로를 확인하였다.

연구 데이터 면에서도 다양한 자료원이 활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청년층 부가조사는 기본 지표를 제시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등 특화자료는 세부적인 분석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데, 교육부와 고용부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업 중단 청년이나 구직 단념 청년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방식이다(유민상·김기현·김나영, 2023; 길현종·양승엽·박재은, 2024). 이러한 방법론적 다변화는 청년층 비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성(시간 경과에 따른 이동)과 은닉된 위험군 집단 파악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통계분석부터 심층 인터뷰까지 폭넓은 방법을 활용하여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해왔다.

## 제4절 소결 : 선행연구의 함의와 본 연구의 지향점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비구직 청년을 하위 분해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쟁점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먼저 비구직 청년을 니트와 같이 이미 문제가 현실화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다. 니트 정의의 배경에는 1990년대 영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건실한’ 청년이라면 교육, 직업훈련, 고용 상태 중 어느 한 가지의 지위를 획득한 상태일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반면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문제 상황에 놓인’ 청년으로 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일본식 니트의 정의에는 관심 대상인 청년의 연령대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육아·가사활동·결혼 유무를 또 다른 ‘바람직한’ 지위적 속성으로 추가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한국에서는 니트의 고학력화에 주목하였고(남재량, 2012) 이는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비구직인 사람들을 이례적인 문제 상황으로 보았음을 전제한다. 후속된 한국식 니트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김기현 외, 2021) 또한 결국 정책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켄거루족이나 은둔형 청년과 같은 파생적 프레임도 또한 같은 문제의식에서 니트 청년의 심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자 한 것이라 판단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구직 청년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비구직 상태 자체를 문제 상황으로 치환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비구직 청년들에게 문제가 발현할 가능성을 전후 사회적·심리적 맥락에 따라 확률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예방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니트 정의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지위적 속성들(교육훈련, 육아·가사, 질병 유무 등) 또한 비구직 청년 개인의 하위 유형에 따라 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면서 확률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제4장에서 다루는 잠재집단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사실 이는 니트 현상을 포착한 선행연구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은 국내 청년 니

트층은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등 매우 이질적인 하위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자발적 선택형은 사회 부적응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니트들과는 정책 지원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함을 합의하였다. 반대로 니트가 아닌 청년을(예: 도피성 유학의 장기화) 건전한 상태에 놓인 청년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시점의 니트 상태 유무를 문제의 준거로 삼았을 때 이것이 의도적 단절과 구조적 배제 중 어떤 것에 기인한 결과인지는 결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쟁점은 비구직 청년의 실태 연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품질 여부이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청년 니트 유형의 다양성에 비해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들은 한계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주된 목적상 응답자의 특정한 지위적 속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문항들이 많은 반면, 비구직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일정한 기간 내의 심리적 상태를 추론할 만한 조사문항들은 드문 편이다. 특히 구직 단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택형 문항의 경우에는 비구직 청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조사의 설계로 인해 응답표본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반복적 횡단자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에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구직 청년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 대표적인 종단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자료를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의 주된 동기가 청년 비노동력화의 장기화를 포착하는 것에 있고, 종단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개인 단위에서 변화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을 것 이란 판단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비구직 청년의 잠재적이면서 다층적인 특성을 포착할 만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의 선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몇 가지 관측 변수의 나열만으로 비구직 청년의 상태 지위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한다. 반면 자료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한 변수들의 응답 조합을 활용하여 비구직 청년들이 소속될 수 있는 하위집단의 윤곽을 그리고, 청년 개인이 특정 하위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집단 멤버십이 청년들의 가까운 미래 경제활동 상태를 예측하는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 집단 분석(LCA : 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한다. 잠재집단 분석은 관측된 범주형 변수들 간의 응답 패턴을 바탕으로, 관측되지 않는 잠재적인 집단을 도출하는 확률적 모형으로, 심화 모형으로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의 동시 활용 또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별, 연령, 일 경험 유무, 교육수준, 심리적 취약성(우울감,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비구직 청년의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제3장 비구직 청년의 현황

이 장에서는 비구직 청년의 현황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동안 비구직 청년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기술적인 수준(descriptive level)에서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심 대상인 비구직 청년을 정의하고 관심연령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사용한 공공 데이터에서 어떤 지표 변수들을 통해 비구직 청년 데이터를 추출하였는지 설명하고, 주로 살펴보고자 한 관심변수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에는 빈도분석을, 동태적 특성의 경우에는 개인별 경제활동 상태의 연도별 관측치를 통해 이행 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성한 뒤 시각화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였다.

### 제1절 비구직 청년의 조작적 정의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비구직 청년(Youth Facing Employment Disengagement)을 “1)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2)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3) 가까운 시일 내에 구직의사가 없는 19~39세의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채택한 이유는 본 연구

의 실용적 목적이 청년들의 비구직 요인을 폭넓게 탐색함으로써 ‘쉬었음’ 청년뿐 아니라 정책 도움이 필요한 유형의 비구직 청년을 발굴해내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의 상태와 과거 경험을 통한 개인의 전망을 모두 고려하는 과정 중심의 모형(Process-based Model)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에는 청년의 비경제활동 양상을 파악하는 측정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드물다.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택형 문항들은 구직 희망 여부 및 이전 직장 관련 질문이 대다수이고, 비구직 사유와 전망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문항이 충분히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정책 연구 대상으로서 적절한 청년의 연령 범위는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범용적인 국제 비교의 목적으로는 「청년고용특별촉진법」에서 정한 15~29세로 청년을 정의한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거나 「청년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는 연구는 19~34세로 청년을 정의한다.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청년의 상한을 만 39세로 정의해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39세로 설정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 보았듯이, 비구직 청년 중 ‘쉬었음’ 인구와 같은 특정 계층의 증감이 30대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본 연구가 비노동력화의 장기화 가능성을 관심 있게 보는 만큼, 30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년의 시작 연령을 만 19세로 설정한 이유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전일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15년에 만 19~39세의 인구 중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약 2% 내외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만 건 기준. 가중치 없을 시). 달리 말하면, 한국의 경우 만 19세 이전에는 대다수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직업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 제2절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 1. 데이터

비구직 청년의 인구적 특성 현황을 살피기 위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10년 치(2015~2024) 연간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요약자료에서 제공하는 주요 현황 외에 관심변수들 간의 교차관계를 보는 데에 유용하다. 분석에서는 전체 자료 중 '경제활동상태코드' 변수에 '비경제활동' 범주로 분류된 응답자 중 응답 당시의 만 연령이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 2. 관심변수 및 분석 방법

〈표 3-1〉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성이 높은 관심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절에서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 관련 5개 변수에 대해 연도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도표로 정리하였다. 연령 변수에 대해서는 나이별 빈도를 바탕으로 상대적 밀도를 계산하여 전체 분포와 성별 분포를 시각화하였다. 비경제활동 청년의 구직 의사와 활동상태, 이전 직장 경험과 관련된 6개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한 뒤, 연도에 따라 특이한 경향성을 보이는 변수가 있을 시 추가로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개별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마친 뒤 연도별 트렌드의 변화가 특이성을 갖는 범주형 변수들을 바탕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관심 문항의 내용

변수명	조사 문항 내용
동부읍면부코드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바탕으로 정의
가구주관계코드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코드	성별
교육정도_학력구분코드	교육 정도(학력)
혼인상태코드	혼인 상태
만연령	생년월일
비경제활동구직의사여부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셧습니까?”
비경제활동취업가능성여부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기타활동사항_4주내비구직사유코드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활동사항_지난주주요활동상태코드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셧습니까?”
이전직장사항_전직유무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직장사항_1년미만퇴직연월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전직장사항_이직사유코드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 저자 작성.

###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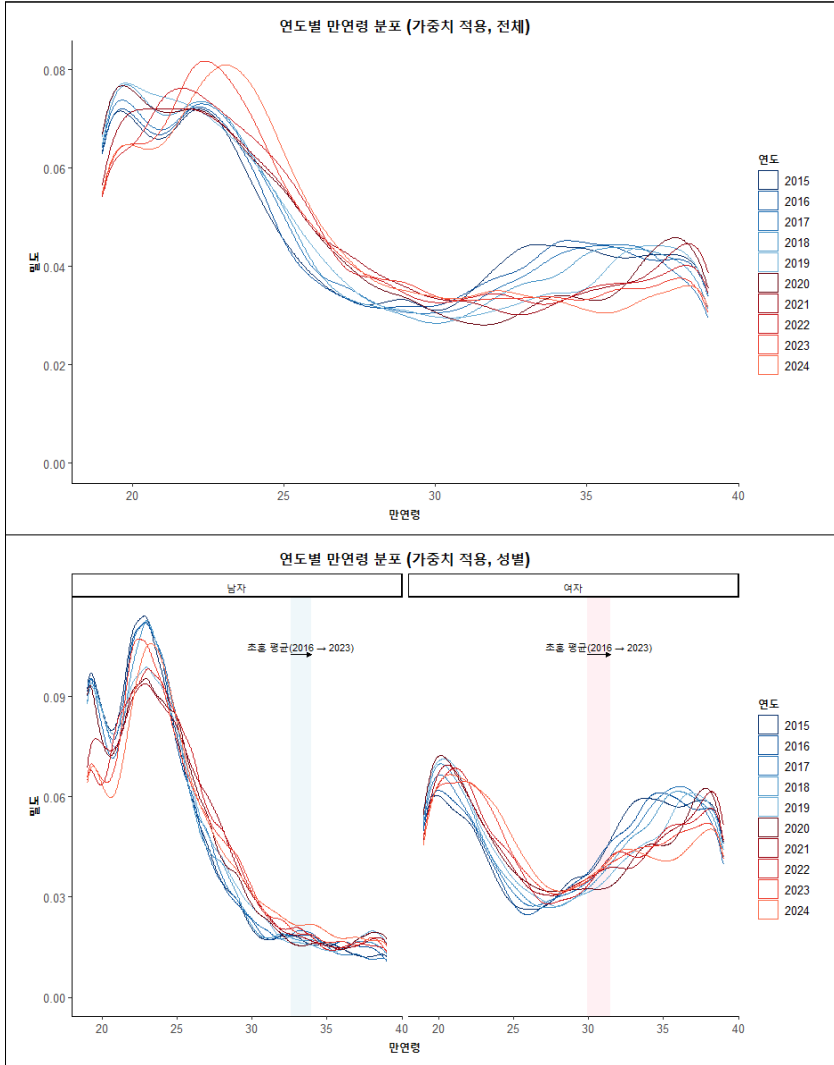
#### 가. 기본통계

기본통계를 위해 제시한 모든 표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였다. 〈표 3-2〉와 〈표 3-3〉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비경제활동 청년의 거주 행정구역,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주와의 관계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가중치를 적용한 〈표 3-3〉을 기준으로 주요 기술통계를 살펴보자면, 먼저 비경제활동 청년의 연평균 규모는 약 443만~353.8만 명 수준이며, 10년 평균값은 414.8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편이나, 연도별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학력별로는 고졸(또는 고등학교 중퇴 포함) 수준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20% 내외를 차지하며, 4년제 대학(재학·휴학·졸업) 관련 집단이

꾸준히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전체의 2%대를 유지 중이다. 혼인 상태는 미혼자가 전체의 약 60~76%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그림 3-1]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경제활동 청년 자료를 1세 간

[그림 3-1] 연도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령 분포(전체 · 남 · 여)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표 3-2〉 19~39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학적 분포(원자료)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행정 구역	동부	53,377 (85.3)	49,927 (85.0)	49,068 (84.1)	48,577 (84.7)	47,661 (86.0)	49,316 (86.4)	47,642 (86.7)	42,095 (86.8)	39,047 (86.5)	36,274 (85.9)	46,298 (85.7)
	읍면부	9,162 (14.7)	8,786 (15.0)	9,250 (15.9)	8,773 (15.3)	7,768 (14.0)	7,745 (13.6)	7,317 (13.3)	6,422 (13.2)	6,105 (13.5)	5,965 (14.1)	7,729 (14.3)
성별	여자	42,787 (68.4)	39,688 (67.6)	38,773 (66.5)	37,184 (64.8)	35,279 (63.6)	35,097 (61.5)	33,501 (61.0)	29,168 (60.1)	26,800 (59.4)	24,375 (57.7)	34,265 (63.1)
	남자	19,752 (31.6)	19,025 (32.4)	19,545 (33.5)	20,166 (35.2)	20,150 (36.4)	21,964 (38.5)	21,458 (39.0)	19,349 (39.9)	18,352 (40.6)	17,864 (42.3)	19,763 (36.9)
교육 정도	대학교(4년제)	31,022 (49.6)	29,754 (50.7)	29,945 (51.3)	29,620 (51.6)	29,364 (53.0)	31,427 (55.1)	30,716 (55.9)	27,120 (55.9)	25,353 (56.2)	24,036 (56.9)	28,836 (53.6)
	전문대(2·3년)	14,019 (22.4)	13,148 (22.4)	13,108 (22.5)	12,999 (22.7)	12,194 (22.0)	11,907 (20.9)	10,825 (19.7)	9,681 (20.0)	8,818 (19.5)	8,086 (19.1)	11,479 (21.1)
	고등학교	14,109 (22.6)	12,926 (22.0)	12,435 (21.3)	11,825 (20.6)	11,035 (19.9)	10,915 (19.1)	10,859 (19.8)	9,445 (19.5)	8,734 (19.3)	7,973 (18.9)	11,026 (20.3)
	대학원(석사)	1,917 (3.1)	1,696 (2.9)	1,688 (2.9)	1,564 (2.7)	1,552 (2.8)	1,605 (2.8)	1,532 (2.8)	1,385 (2.9)	1,346 (3.0)	1,280 (3.0)	1,557 (2.9)
	중학교	1,036 (1.7)	778 (1.3)	748 (1.3)	817 (1.4)	729 (1.3)	662 (1.2)	633 (1.2)	569 (1.2)	570 (1.3)	524 (1.2)	707 (1.3)

〈표 3-2〉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교육 정도	대학원(박사)	218 (0.3)	186 (0.3)	174 (0.3)	240 (0.4)	248 (0.4)	249 (0.4)	164 (0.3)	185 (0.4)	219 (0.5)	230 (0.5)	211 (0.4)
	초등학교	131 (0.2)	128 (0.2)	125 (0.2)	216 (0.4)	222 (0.4)	220 (0.4)	144 (0.3)	98 (0.2)	84 (0.2)	77 (0.2)	145 (0.3)
	무학	87 (0.1)	97 (0.2)	95 (0.2)	69 (0.1)	85 (0.2)	76 (0.1)	86 (0.2)	34 (0.1)	28 (0.1)	33 (0.1)	69 (0.1)
혼인 상태	미혼	35,176 (56.2)	33,709 (57.4)	34,845 (59.7)	35,979 (62.7)	36,849 (66.5)	40,111 (70.3)	38,704 (70.4)	34,466 (71.0)	32,507 (72.0)	31,271 (74.0)	35,362 (66.0)
	유배우	26,934 (43.1)	24,645 (42.0)	23,136 (39.7)	21,089 (36.8)	18,238 (32.9)	16,537 (29.0)	15,755 (28.7)	13,494 (27.8)	12,195 (27.0)	10,636 (25.2)	18,266 (33.2)
	이혼	372 (0.6)	316 (0.5)	307 (0.5)	265 (0.5)	313 (0.6)	369 (0.6)	460 (0.8)	522 (1.1)	417 (0.9)	291 (0.7)	363 (0.7)
	사별	57 (0.1)	43 (0.1)	30 (0.1)	17 (0.0)	29 (0.1)	44 (0.1)	40 (0.1)	35 (0.1)	33 (0.1)	41 (0.1)	37 (0.1)
가구주 관계	미혼자녀	30,726 (49.1)	29,122 (49.6)	29,480 (50.6)	29,641 (51.7)	29,922 (54.0)	33,302 (58.4)	32,508 (59.1)	28,561 (58.9)	26,297 (58.2)	24,873 (58.9)	29,443 (54.8)
	배우자	24,083 (38.5)	21,872 (37.3)	20,600 (35.3)	18,686 (32.6)	16,159 (29.2)	14,702 (25.8)	13,828 (25.2)	11,911 (24.6)	10,560 (23.4)	9,253 (21.9)	16,165 (29.4)

〈표 3-2〉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가구주 관계	가구주	4,572 (7.3)	4,652 (7.9)	5,082 (8.7)	6,062 (10.6)	6,293 (11.4)	6,263 (11.0)	6,010 (10.9)	5,680 (11.7)	5,960 (13.2)	6,153 (14.6)	5,673 (10.7)
	기혼자녀	1,247 (2.0)	1,093 (1.9)	1,023 (1.8)	809 (1.4)	755 (1.4)	660 (1.2)	707 (1.3)	592 (1.2)	570 (1.3)	386 (0.9)	784 (1.4)
	미혼 형제자매	760 (1.2)	836 (1.4)	861 (1.5)	835 (1.5)	727 (1.3)	784 (1.4)	669 (1.2)	699 (1.4)	724 (1.6)	590 (1.4)	749 (1.4)
	기타	612 (1.0)	571 (1.0)	651 (1.1)	715 (1.2)	915 (1.7)	690 (1.2)	620 (1.1)	556 (1.1)	589 (1.3)	513 (1.2)	643 (1.2)
	손자녀	535 (0.9)	567 (1.0)	621 (1.1)	602 (1.0)	658 (1.2)	660 (1.2)	617 (1.1)	518 (1.1)	452 (1.0)	471 (1.1)	570 (1.1)

자료: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표 3-3〉 19~39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학적 분포(가중치)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행정 구역	동부	3,874 (87.5)	3,756 (86.9)	3,729 (86.5)	3,667 (86.3)	3,674 (86.5)	3,856 (86.6)	3,707 (86.4)	3,418 (87.0)	3,270 (88.2)	3,116 (88.1)	3,607 (87.0)
	읍면부	556 (12.5)	566 (13.1)	583 (13.5)	582 (13.7)	572 (13.5)	598 (13.4)	583 (13.6)	509 (13.0)	437 (11.8)	422 (11.9)	541 (13.0)
성별	여자	2,862 (64.6)	2,758 (63.8)	2,702 (62.7)	2,625 (61.8)	2,603 (61.3)	2,664 (59.8)	2,525 (58.9)	2,296 (58.5)	2,119 (57.2)	1,949 (55.1)	2,510 (60.4)
	남자	1,568 (35.4)	1,565 (36.2)	1,611 (37.3)	1,623 (38.2)	1,642 (38.7)	1,791 (40.2)	1,765 (41.1)	1,631 (41.5)	1,587 (42.8)	1,589 (44.9)	1,637 (39.6)
교육 정도	대학교(4년제)	2,280 (51.5)	2,287 (52.9)	2,287 (53.0)	2,271 (53.4)	2,258 (53.2)	2,459 (55.2)	2,409 (56.1)	2,221 (56.6)	2,105 (56.8)	2,011 (56.9)	2,259 (54.6)
	전문대(2·3년)	957 (21.6)	917 (21.2)	930 (21.6)	934 (22.0)	923 (21.7)	903 (20.3)	826 (19.3)	774 (19.7)	717 (19.4)	672 (19.0)	855 (20.6)
	고등학교	936 (21.1)	892 (20.6)	877 (20.3)	823 (19.4)	831 (19.6)	855 (19.2)	847 (19.7)	742 (18.9)	690 (18.6)	656 (18.5)	815 (19.6)
	대학원(석사)	156 (3.5)	144 (3.3)	136 (3.1)	123 (2.9)	128 (3.0)	141 (3.2)	131 (3.0)	123 (3.1)	123 (3.3)	122 (3.4)	133 (3.2)
	중학교	68 (1.5)	53 (1.2)	55 (1.3)	58 (1.4)	57 (1.3)	49 (1.1)	46 (1.1)	42 (1.1)	45 (1.2)	46 (1.3)	52 (1.3)

〈표 3-3〉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교육 정도	대학원(박사)	18 (0.4)	14 (0.3)	13 (0.3)	21 (0.5)	24 (0.6)	24 (0.5)	17 (0.4)	16 (0.4)	19 (0.5)	22 (0.6)	19 (0.5)
	초등학교	8 (0.2)	7 (0.2)	8 (0.2)	14 (0.3)	18 (0.4)	17 (0.4)	9 (0.2)	6 (0.1)	6 (0.2)	6 (0.2)	10 (0.2)
	무학	6 (0.1)	8 (0.2)	7 (0.2)	6 (0.1)	6 (0.1)	5 (0.1)	6 (0.1)	3 (0.1)	2 (0.0)	2 (0.0)	5 (0.1)
혼인 상태	미혼	2,660 (60.0)	2,663 (61.6)	2,769 (64.2)	2,820 (66.4)	2,911 (68.6)	3,165 (71.1)	3,065 (71.4)	2,847 (72.5)	2,746 (74.1)	2,704 (76.4)	2,835 (68.6)
	유배우	1,739 (39.3)	1,635 (37.8)	1,518 (35.2)	1,409 (33.2)	1,306 (30.8)	1,255 (28.2)	1,187 (27.7)	1,039 (26.5)	927 (25.0)	810 (22.9)	1,282 (30.6)
	이혼	27 (0.6)	22 (0.5)	24 (0.5)	18 (0.4)	26 (0.6)	31 (0.7)	36 (0.8)	39 (1.0)	31 (0.8)	21 (0.6)	28 (0.7)
	사별	4 (0.1)	3 (0.1)	2 (0.0)	1 (0.0)	2 (0.1)	4 (0.1)	3 (0.1)	2 (0.0)	2 (0.1)	3 (0.1)	3 (0.1)
가구주 관계	미혼자녀	2,305 (52.0)	2,290 (53.0)	2,358 (54.7)	2,327 (54.8)	2,379 (56.0)	2,627 (59.0)	2,572 (60.0)	2,345 (59.7)	2,207 (59.6)	2,135 (60.4)	2,355 (56.9)
	배우자	1,551 (35.0)	1,445 (33.4)	1,353 (31.4)	1,246 (29.3)	1,154 (27.2)	1,115 (25.0)	1,038 (24.2)	923 (23.5)	797 (21.5)	701 (19.8)	1,132 (27.0)

〈표 3-3〉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가구주 관계	가구주	339 (7.7)	353 (8.2)	364 (8.4)	442 (10.4)	462 (10.9)	482 (10.8)	466 (10.9)	462 (11.8)	504 (13.6)	527 (14.9)	440 (10.7)
	기혼자녀	58 (1.3)	68 (1.6)	65 (1.5)	70 (1.6)	64 (1.5)	71 (1.6)	64 (1.5)	65 (1.7)	65 (1.7)	59 (1.7)	65 (1.6)
	미혼 형제자매	88 (2.0)	80 (1.9)	70 (1.6)	56 (1.3)	61 (1.4)	53 (1.2)	58 (1.3)	45 (1.1)	45 (1.2)	27 (0.8)	58 (1.4)
	기타	49 (1.1)	46 (1.1)	53 (1.2)	61 (1.4)	76 (1.8)	58 (1.3)	48 (1.1)	48 (1.2)	52 (1.4)	49 (1.4)	54 (1.3)
	손자녀	40 (0.9)	41 (0.9)	50 (1.2)	47 (1.1)	50 (1.2)	48 (1.1)	45 (1.0)	39 (1.0)	36 (1.0)	40 (1.1)	43 (1.0)

자료: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격으로 연도별 만 연령 분포를 전체 집단과 남녀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초혼 평균연령이 2016년에는 남성 32.57세, 여성 29.96세, 2023년에는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로 집계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비구직 청년의 성별 연령 밀도그래프에 음영으로 참조구간을 표시하였다. 비경제활동 청년의 연령대가 20대 초·중반과 30대 중·후반에서 각각 밀집되는 이중봉(bimodality) 양상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중반에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과 30대 중반에서 이중봉 양상을 갖고 있다. 평균 혼인 연령 시점을 전후로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 추세인 반면 여성은 상승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연령 분포의 양상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로 20대 후반 분포가 다소 늘고 30대 분포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연령별 분포가 이중봉을 보이는 점은 특정 시점(20대 초중반 전후, 30대 중반 전후)에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빠지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향후 세분화된 정책 지원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특성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 구직의사 여부 및 활동상태

〈표 3-4〉는 비경제활동 청년의 구직의사 여부 및 주 활동상태를 상위권부터 나열하였다. 〈표 3-4〉에서 비구직 사유 변수의 경우 조사설계상 이전 문항에서 구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 모집단 수가 다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결과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77%가 최근 구직의사가 없었으며, 22% 정도는 구직의사가 있었음에도 최근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주요 비구직 사유로는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없음을 경험하거나 없을 것이라 예상한 경우가 약 37%, 본인의 역량이 직업을 구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그러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약 43%였다. 즉 외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내부적 역량 부재에 대한 불안이 비구직 사유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등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3%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표 3-4〉 비경제활동 청년의 구직의사와 주요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구직의사 여부	아니요	3551.3 (80.2)	3484.5 (80.6)	3416.4 (79.2)	3335.2 (78.5)	3272.7 (77.1)	3290.5 (73.9)	3127.9 (72.9)	2945.3 (75)	2869.8 (77.4)	2729.7 (77.2)	3202.3 (77.2)
	예	864.1 (19.5)	818.3 (18.9)	869.7 (20.2)	891.1 (21)	945 (22.3)	1131.7 (25.4)	1125.2 (26.2)	942.8 (24)	790 (21.3)	758.5 (21.4)	913.6 (22)
	설계상 무응답	14.8 (0.3)	19.9 (0.5)	26.8 (0.6)	22.5 (0.5)	28.2 (0.7)	32.2 (0.7)	36.8 (0.9)	38.9 (1)	46.5 (1.3)	49.8 (1.4)	31.6 (0.8)
지난주 주요 활동상태	정규교육기관 통학	1359.8 (30.7)	1355.3 (31.4)	1401.5 (32.5)	1410.5 (33.2)	1390.6 (32.8)	1484 (33.3)	1387.8 (32.4)	1318.1 (33.6)	1287.3 (34.7)	1224.8 (34.6)	1362 (32.9)
	육아	1187.1 (26.8)	1112.9 (25.7)	1029.2 (23.9)	942.6 (22.2)	906.9 (21.4)	887.6 (19.9)	811.6 (18.9)	697.1 (17.8)	574.3 (15.5)	489 (13.8)	863.8 (20.6)
	쉬었음	463.2 (10.5)	433.4 (10)	466.3 (10.8)	480.7 (11.3)	561.9 (13.2)	690.1 (15.5)	690.5 (16.1)	636.9 (16.2)	658.8 (17.8)	708 (20)	579 (14.1)
	취업준비	341.7 (7.7)	364 (8.4)	400.5 (9.3)	422 (9.9)	439.2 (10.3)	502.7 (11.3)	559.6 (13)	504.2 (12.8)	438.1 (11.8)	399 (11.3)	437.1 (10.6)
	가사	535.1 (12.1)	507.5 (11.7)	469.1 (10.9)	447.5 (10.5)	391.1 (9.2)	366.3 (8.2)	362.3 (8.4)	340.3 (8.7)	337 (9.1)	303.9 (8.6)	406 (9.7)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200.9 (4.5)	193.2 (4.5)	210.1 (4.9)	203.4 (4.8)	222.3 (5.2)	210.8 (4.7)	190.7 (4.4)	168.2 (4.3)	146.8 (4)	149.8 (4.2)	189.6 (4.6)

〈표 3-4〉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지난주 주요 활동상태	진학준비	94.3 (2.1)	123.3 (2.9)	100.5 (2.3)	89.6 (2.1)	85.5 (2)	93.2 (2.1)	72.5 (1.7)	71.7 (1.8)	75.8 (2)	77.5 (2.2)	88.4 (2.1)
	심신장애	80.6 (1.8)	86.4 (2)	96.2 (2.2)	99.1 (2.3)	96.2 (2.3)	90.5 (2)	88.7 (2.1)	78.7 (2)	73.6 (2)	73 (2.1)	86.3 (2.1)
	군입대 대기	69 (1.6)	62.6 (1.4)	67.1 (1.6)	67.3 (1.6)	61.8 (1.5)	59.8 (1.3)	54.7 (1.3)	43.9 (1.1)	40.2 (1.1)	36.1 (1)	56.2 (1.3)
	입시학원 통학	43.7 (1)	43.4 (1)	36.3 (0.8)	41.1 (1)	45.2 (1.1)	28.7 (0.6)	31.4 (0.7)	36.1 (0.9)	45.6 (1.2)	56.8 (1.6)	40.8 (1)
	기타	54.9 (1.2)	40.6 (0.9)	35.9 (0.8)	44.9 (1.1)	45.1 (1.1)	40.7 (0.9)	40 (0.9)	31.7 (0.8)	28.7 (0.8)	19.9 (0.6)	38.2 (0.9)
비구직 사유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36.4 (27.4)	232.1 (28.4)	221.2 (25.4)	227.7 (25.5)	250.1 (26.5)	311.9 (27.6)	315.8 (28.1)	283.6 (30.1)	268.9 (34)	235.6 (31.1)	258.3 (28.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72.3 (19.9)	218.5 (26.7)	283.9 (32.6)	299.1 (33.6)	304.8 (32.3)	287.1 (25.4)	281 (25)	253.3 (26.9)	207 (26.2)	213.9 (28.2)	252.1 (27.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34.5 (15.6)	120.4 (14.7)	127.9 (14.7)	118.2 (13.3)	135.2 (14.3)	172.9 (15.3)	173.8 (15.4)	153.2 (16.2)	139.4 (17.7)	147.5 (19.4)	142.3 (15.7)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92.2 (10.7)	94.7 (11.6)	80.6 (9.3)	80.5 (9)	82.8 (8.8)	108 (9.5)	113.6 (10.1)	79.1 (8.4)	65 (8.2)	52.1 (6.9)	84.9 (9.2)
	기타	116.8 (13.5)	79.5 (9.7)	77.9 (9)	82 (9.2)	80.7 (8.5)	111.9 (9.9)	118.3 (10.5)	77.6 (8.2)	41.6 (5.3)	25.2 (3.3)	81.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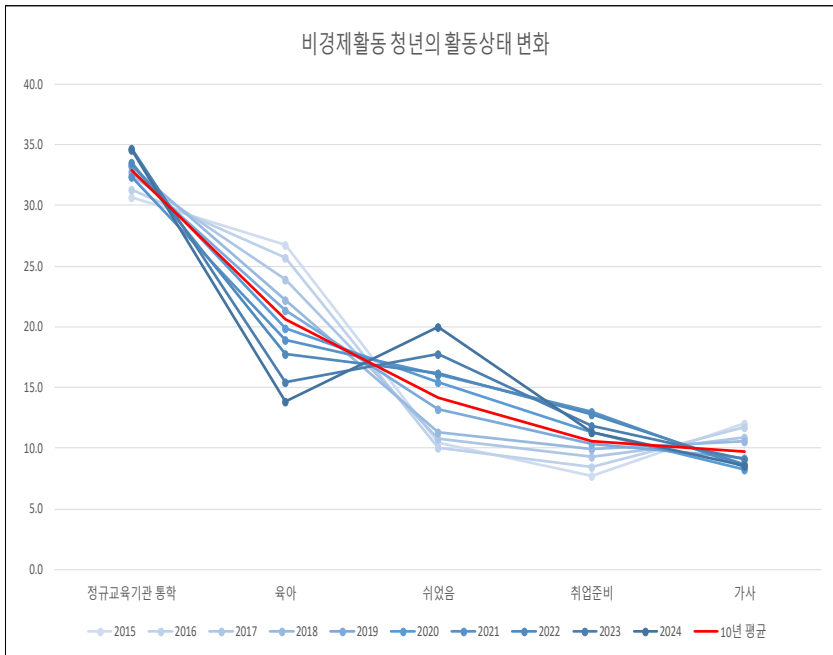
〈표 3-4〉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비구직 사유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8.8 (3.3)	19.4 (2.4)	23.2 (2.7)	27.5 (3.1)	28.5 (3)	49.7 (4.4)	45.3 (4)	31.2 (3.3)	22.2 (2.8)	31 (4.1)	30.7 (3.3)
	통학	33.6 (3.9)	19 (2.3)	19.3 (2.2)	21.7 (2.4)	31.4 (3.3)	37.6 (3.3)	31.6 (2.8)	31.8 (3.4)	23.4 (3)	25.7 (3.4)	27.5 (3)
	육아	31.2 (3.6)	19.8 (2.4)	25.2 (2.9)	24.3 (2.7)	20.8 (2.2)	31 (2.7)	29.8 (2.6)	20.6 (2.2)	12.2 (1.5)	15.9 (2.1)	23.1 (2.5)
	가사	13.1 (1.5)	12 (1.5)	9.2 (1.1)	7.6 (0.8)	7.3 (0.8)	16.6 (1.5)	12.1 (1.1)	9.1 (1)	5.1 (0.7)	6.9 (0.9)	9.9 (1.1)
	심신장애	4.7 (0.5)	2.2 (0.3)	0.9 (0.1)	0.9 (0.1)	2.7 (0.3)	3.9 (0.3)	3.4 (0.3)	2.3 (0.2)	4 (0.5)	2.5 (0.3)	2.7 (0.3)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0.7 (0.1)	0.9 (0.1)	0.3 (0)	1.7 (0.2)	0.5 (0.1)	0.9 (0.1)	0.4 (0)	1.1 (0.1)	1.2 (0.1)	2.3 (0.3)	1 (0.1)

자료: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그림 3-2]는 지난주 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유형 중 주요 5개 범주의 10년 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정규교육기관 통학”, “육아”, “쉬었음”이 가장 비중이 큰 세 가지 활동상태로, 평균 기준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이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의 경우 인구 대비 비중이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시계열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육아” 상태인 인구가 10년간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 “쉬었음” 상태인 인구는 동일 기간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육아 중인 청년의 감소는 저조한 혼인율과 출생률의 반영으로 보인다.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청년 중 명목적인 사유를 갖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부터 ‘쉬었음’ 청년의 수가 육아 중인 청년의 수를 넘어섰다. “취업준비” 응답도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10년간 약 8~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사”는 12.1%에서 8.6%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3-2] 연도별 청년 비경제활동 유형 변화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 다. 이전 직장 경험

〈표 3-5〉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의 퇴직 기간과 이·퇴직 사유를 고빈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10년 치 평균 기준으로 비경제활동 청년 중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69.1%이다. 그러나 이전 직장을 퇴직한 지 1년이 넘는 청년(44.2%)이 1년 미만의 청년(24.9%)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직장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청년도 30%에 달한다.

퇴직 사유의 경우 조사설계상 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응답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개인·가족 사유(49.4%)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족(16.9%)하는 등, 자발적인 사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청년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외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청년이 3분의 1인데 주된 사유는 임시직 종료(14.3%), 육아(7.1%), 일거리 없음(3.7%), 구조조정(2.9%), 직장 폐쇄(2.6%) 순이다. 시계열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근로조건에 불만족 사유와 임시직의 종료 사유가 10년에 걸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15.4%→20.1%, 10.4%→17.2%).

〈표 3-5〉 비경제활동 청년의 이전 직장 퇴직 및 이직 사유

(단위: 천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퇴직기간	1년 이상	2,139 (48.3)	1,994 (46.1)	1,943.7 (45.1)	1,913.4 (45)	1,871.5 (44.1)	1,827.3 (41)	1,878.9 (43.8)	1,733.9 (44.2)	1,564.6 (42.2)	1,486.6 (42)	1,835.3 (44.2)
	직장 없었음	1,185.3 (26.8)	1,259 (29.1)	1,326.9 (30.8)	1,329.7 (31.3)	1,366.9 (32.2)	1,449.7 (32.5)	1,357.9 (31.7)	1,225.1 (31.2)	1,198.5 (32.3)	1,109.7 (31.4)	1,280.9 (30.9)
	1년 미만	1,105.9 (25)	1,069.7 (24.7)	1,042.2 (24.2)	1,005.7 (23.7)	1,007.6 (23.7)	1,177.4 (26.4)	1,053.1 (24.5)	967.9 (24.6)	943.1 (25.4)	941.6 (26.6)	1,031.4 (24.9)
1년 미만 이직 사유	개인, 가족 관련	596.1 (53.9)	576.2 (53.9)	542.2 (52)	542.2 (53.9)	510.8 (50.7)	511 (43.4)	442.9 (42.1)	466.6 (48.2)	463 (49.1)	442.3 (47)	509.3 (49.4)
	작업여건 불만족	170.3 (15.4)	158.5 (14.8)	169.8 (16.3)	174.4 (17.3)	178 (17.7)	184.4 (15.7)	157.8 (15)	173.5 (17.9)	180.3 (19.1)	189.5 (20.1)	173.6 (16.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15 (10.4)	117.8 (11)	121.3 (11.6)	111.1 (11)	141.4 (14)	197.1 (16.7)	191.4 (18.2)	166.9 (17.2)	148.8 (15.8)	162.1 (17.2)	147.3 (14.3)
	육아	92.8 (8.4)	94.3 (8.8)	94.4 (9.1)	81.2 (8.1)	65.8 (6.5)	80.1 (6.8)	69.7 (6.6)	55 (5.7)	52.9 (5.6)	51 (5.4)	73.7 (7.1)

〈표 3-5〉의 계속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1년 미만 이직 사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	44.7 (4)	42.4 (4)	35.9 (3.4)	28.3 (2.8)	34 (3.4)	64.5 (5.5)	55.5 (5.3)	31.8 (3.3)	28.1 (3)	25.3 (2.7)	39 (3.7)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13.9 (1.3)	21.2 (2)	22.3 (2.1)	21.8 (2.2)	24.5 (2.4)	56.9 (4.8)	60.6 (5.8)	25.2 (2.6)	28.7 (3)	28.4 (3)	30.4 (2.9)
	직장의 휴업, 폐업	18.9 (1.7)	13.3 (1.2)	17.8 (1.7)	20.7 (2.1)	25.5 (2.5)	55.7 (4.7)	50.4 (4.8)	23.8 (2.5)	19.5 (2.1)	25.3 (2.7)	27.1 (2.6)
	가사	21.9 (2)	23.1 (2.2)	18.5 (1.8)	12.9 (1.3)	10.7 (1.1)	10.4 (0.9)	10.5 (1)	11.8 (1.2)	10.5 (1.1)	9 (1)	13.9 (1.3)
	기타	28.1 (2.5)	17.9 (1.7)	17.1 (1.6)	10.8 (1.1)	13.9 (1.4)	12.3 (1)	11.6 (1.1)	10.4 (1.1)	5.6 (0.6)	4.8 (0.5)	13.2 (1.3)
	심신장애	4.4 (0.4)	4.9 (0.5)	2.9 (0.3)	2.4 (0.2)	3.1 (0.3)	4.9 (0.4)	2.8 (0.3)	3 (0.3)	5.7 (0.6)	4 (0.4)	3.8 (0.4)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 라. 교차분석 결과

앞선 기본통계들을 바탕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 중 인구학적으로 비중이 큰 상위 집단들을 특정하기 위해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활용한 교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개별 문항의 분포를 통해서 자칫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표집단을 잘못 추론하는 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개별 문항의 결론을 단순히 합하여 ‘도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구직을 희망하지 않는 대졸 학력 이상의 30대 이상 미혼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표성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치 비경제활동인구를 행정구역, 성별, 교육 정도, 혼인 상태, 가구주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분할표를 작성하였다. 각 변수의 범주 개수로 인해 전체 조합은 6,912개(2×9×2×8×6×4)가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관측치가 없는 그룹이 다수 있었다. 〈표 3-6〉은 빈도수가 많은 상위 15개 그룹을 정리한 것인데, 모두 행정구역이 동부 소재인 청년들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가 연평균 15%밖에 되지 않는 결과라서, 읍면부

소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위 15개 그룹을 추가로 더 확인하여 <표 3-7>에 정리하였다. 상위 5개 그룹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약 45.6%에 해당한다. 이를 유사한 상위 집단으로 통합하면 부모와 함께 살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가 21.7%, 최종 학력을 졸업하여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이 23.9%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집단은 미혼이면서 가구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또는 4년제 졸업자인 남녀로서 약 16.8%를 차지한다.

그밖에 특징적인 집단으로는 4년제 대학 휴학 중인 미혼 남성인데, 비경제활동 청년의 2.63%를 차지한다. 이 중 상당수는 군복무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비중은 15개 집단 중 가장 작지만, 4년제 대학을 재학 중이면서 가구주로 독립해 살고 있는 미혼 남성 집단이 1.63% 존

<표 3-6> 비경제활동 청년 상위 15개 그룹(동부)

동부 읍면부	가구주 관계	성별	교육 정도_ 학력	교육 정도_ 수학구분	혼인 상태	빈도	비율
동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4,299,659.5	10.37
동부	미혼자녀	여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3,825,363.7	9.22
동부	배우자	여자	4년제 대학	졸업	유배우	3,632,324.8	8.76
동부	배우자	여자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2,452,149.1	5.91
동부	배우자	여자	전문대	졸업	유배우	2,422,162.7	5.84
동부	미혼자녀	남자	고등학교	졸업	미혼	1,704,605.0	4.11
동부	미혼자녀	여자	4년제 대학	졸업	미혼	1,646,163.0	3.97
동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졸업	미혼	1,596,367.8	3.85
동부	미혼자녀	여자	고등학교	졸업	미혼	975,918.2	2.35
동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휴학	미혼	943,138.7	2.27
동부	미혼자녀	여자	전문대	졸업	미혼	844,109.1	2.04
동부	미혼자녀	남자	전문대	재학	미혼	805,889.5	1.94
동부	미혼자녀	여자	전문대	재학	미혼	804,284.9	1.94
동부	미혼자녀	남자	전문대	졸업	미혼	756,155.2	1.82
동부	가구주	남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593,914.1	1.43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표 3-7〉 비경제활동 청년 상위 15개 그룹(읍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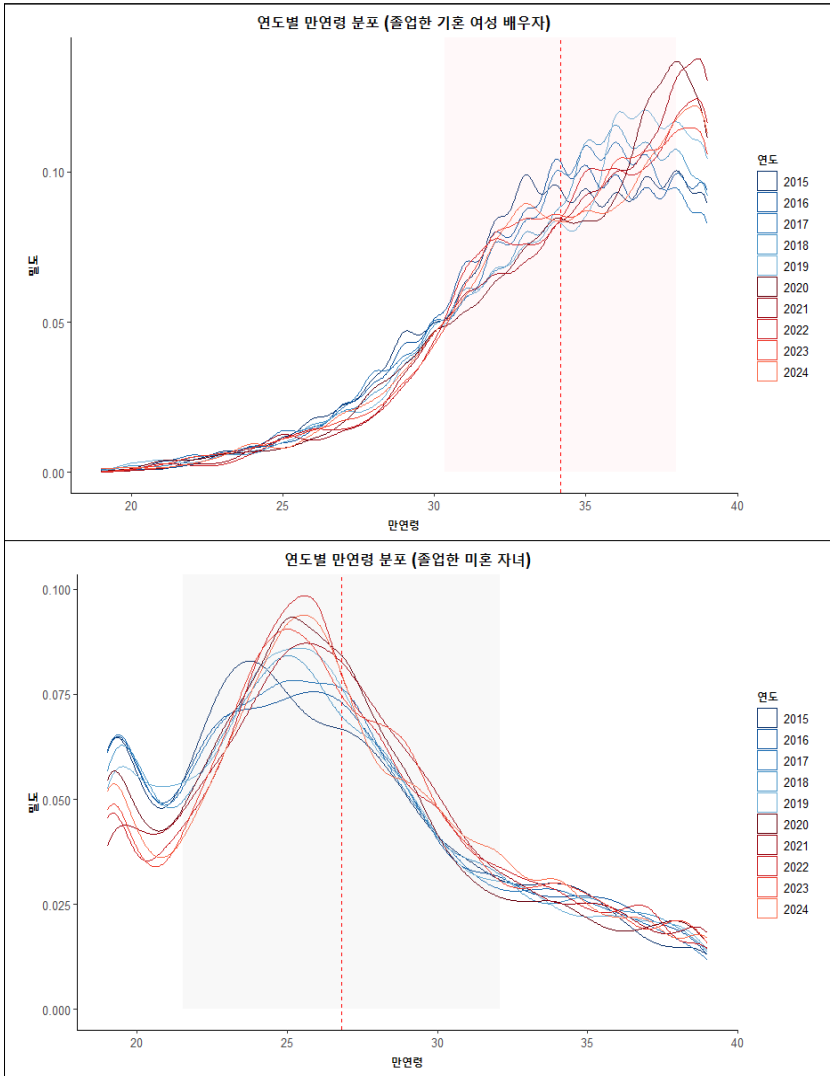
동부 읍면부	가구주 관계	성별	교육 정도_ 학력	교육 정도_ 수학구분	혼인 상태	빈도	비율
읍면부	배우자	여자	고등학교	졸업	유배우	581,873.3	1.4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464,683.3	1.12
읍면부	배우자	여자	4년제 대학	졸업	유배우	434,368.2	1.05
읍면부	미혼자녀	여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418,786.4	1.01
읍면부	배우자	여자	전문대	졸업	유배우	403,120.8	0.97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고등학교	졸업	미혼	350,355.5	0.84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졸업	미혼	256,820.4	0.62
읍면부	미혼자녀	여자	4년제 대학	졸업	미혼	239,729.0	0.58
읍면부	미혼자녀	여자	고등학교	졸업	미혼	197,446.0	0.48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전문대	졸업	미혼	151,511.2	0.37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4년제 대학	휴학	미혼	149,918.7	0.36
읍면부	미혼자녀	남자	전문대	재학	미혼	117,124.9	0.28
읍면부	미혼자녀	여자	전문대	졸업	미혼	111,965.3	0.27
읍면부	미혼자녀	여자	전문대	재학	미혼	109,544.3	0.26
읍면부	가구주	남자	4년제 대학	재학	미혼	83,796.1	0.2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재한다. [그림 3-1]에서 보았던 남성과 여성 비경제활동 청년의 연령 분포와 연관지었을 때, 여성 비경제활동 청년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의 약 2배이지만 그 차이는 30대 이후의 생애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원인은 혼인,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로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차 교차분석에서 의미 있는 비중으로 관측된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전 구직 경험, 구직의사와 비경제활동 사유, 현재 활동상태 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4년제 재학 등) 집단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23.9%)과 미혼이면서 가구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최종 학력 졸업자인 남녀(16.8%) 두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3]은 연도별로 이 두 집단의 연령 분포를 밀도함수를 통해 표현한

[그림 3-3] 배우자 기혼 여성 집단과 미혼자녀 집단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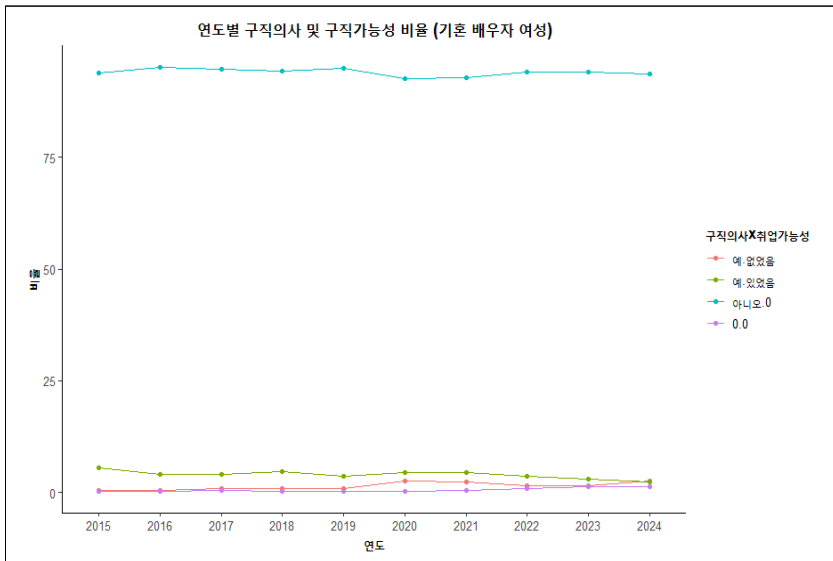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집단의 연령 분포는 매우 이질적인데, ‘기혼 배우자 여성’ 집단이 평균연령 34.2세의 왼쪽으로 치우쳐진 분포(음의 왜도)인 반면, ‘미혼자녀’ 집단은 평균연령 26.8세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분포(양의 왜도)를 갖고 있다. 두 집단 모두에게서 연도별 분포의 미세한 변화

도 나타났는데, 2010년 후반에 비해 2020년대 이후 두 집단에서 모두 밀도가 높은 연령대가 소폭 증가하였다(파란색 실선 대비 빨간색 실선).

배우자 기혼 여성 집단의 경우 [그림 3-4]에서 보듯이 10년 동안 구직의사가 6% 내외로 큰 변동이 없었다. <표 3-8>은 이 집단의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 주된 활동상태 등, 지난 1년 내 구직활동 여부 등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빈도수가 작은 응답유형의 경우 가독성을 위해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취업가능성과 1년 내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에게만 조사를 실시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기혼 여성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었던 6% 중에서도 자신의 취업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은 2015년 5.5%부터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2.3%까지 하락하였다. 이 여성들의 주된 활동상태는 육아 및 가사로 약 98%에 육박한다. 10년간 이 총합의 비중은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육아 비중이 코로나19 시기에 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이후 급감하여 65.4%가 되었고, 동일 기간 가사를 담당하는 인구의 비중이 24%에서 31%로 상승하였다.

[그림 3-4] 배우자 기혼 여성의 구직의사 · 구직가능성 교차비율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표 3-8〉 배우자 기혼 여성 집단의 구직의사 및 활동상태

빈도(명)	응답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구직의사	아니요	1,366,851.1	1,298,633.0	1,208,419.3	1,090,427.9	1,014,382.3	955,926.9	904,868.9	800,503.3	688,363.4	595,373.6	992,375.0
	예	86,811.2	61,093.3	61,546.4	62,864.4	50,265.9	73,646.4	66,615.2	43,401.7	34,248.3	31,355.6	57,184.8
취업가능성	있었음	79,643.8	55,349.6	50,970.4	53,505.8	39,610.4	47,086.5	43,218.5	30,793.0	22,615.1	14,882.9	43,767.6
	없었음	7,167.3	5,743.7	10,576.0	9,358.6	10,655.5	26,559.9	23,396.8	12,608.6	11,633.2	16,472.8	13,417.2
지난주 상태	육아	1,030,738.5	963,569.4	900,536.4	811,297.9	776,722.1	767,937.0	699,563.4	599,533.7	478,875.5	409,180.7	743,795.5
	가사	407,083.6	383,771.5	356,599.3	326,604.8	276,262.1	249,904.5	256,297.0	236,279.5	232,750.8	200,860.0	292,641.3
지난 1년 구직 여부	없었음	68,699.7	48,055.3	46,253.5	48,858.6	38,911.2	55,618.4	46,746.8	32,236.8	23,726.9	23,041.6	43,214.9
	있었음	18,111.5	13,038.0	15,292.9	14,005.7	11,354.7	18,028.0	19,868.5	11,164.9	10,521.5	8,314.0	13,970.0
비율(%)	응답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구직의사	아니요	93.9%	95.2%	94.7%	94.3%	94.9%	92.5%	92.7%	94.0%	94.1%	93.7%	94.0%
	예	6.0%	4.5%	4.8%	5.4%	4.7%	7.1%	6.8%	5.1%	4.7%	4.9%	5.4%
취업가능성	있었음	5.5%	4.1%	4.0%	4.6%	3.7%	4.6%	4.4%	3.6%	3.1%	2.3%	4.0%
	없었음	0.5%	0.4%	0.8%	0.8%	1.0%	2.6%	2.4%	1.5%	1.6%	2.6%	1.4%
지난주 상태	육아	70.8%	70.6%	70.6%	70.1%	72.7%	74.3%	71.7%	70.4%	65.4%	64.4%	70.1%
	가사	28.0%	28.1%	27.9%	28.2%	25.9%	24.2%	26.3%	27.7%	31.8%	31.6%	28.0%
지난 1년 구직 여부	없었음	4.7%	3.5%	3.6%	4.2%	3.6%	5.4%	4.8%	3.8%	3.2%	3.6%	4.1%
	있었음	1.2%	1.0%	1.2%	1.2%	1.1%	1.7%	2.0%	1.3%	1.4%	1.3%	1.4%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표 3-9〉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 및 활동상태, 비구직 사유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구직의사	예	433,606.9	425,547.4	472,059.9	509,214.4	564,774.7	652,076.2	628,658.7	525,467.5	462,244.1	464,863.8	513,851.4
	아니요	323,720.5	334,173.5	350,039.1	354,523.7	390,406.3	417,632.5	406,485.4	393,767.2	418,925.1	453,904.4	384,357.8
취업 가능성	있었음	428,224.3	414,447.1	459,639.1	501,974.6	528,868.3	558,779.4	530,971.5	417,937.8	326,879.5	290,364.7	445,808.6
	없었음	5,382.6	11,100.3	12,420.8	7,239.9	35,906.4	93,296.8	97,687.1	107,529.8	135,364.6	174,499.1	68,042.7
지난주 상태	쉬었음	247,018.7	228,103.8	245,688.2	256,350.5	318,375.1	393,324.2	383,380.7	340,660.1	339,546.6	379,644.7	313,209.2
	취업준비	213,779.8	227,647.3	275,529.9	288,494.4	297,643.5	341,223.5	365,582.6	325,508.9	296,731.6	271,014.4	290,315.6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105,304.9	101,413.1	107,393.5	116,375.9	141,261.0	132,784.3	105,967.6	89,795.1	84,532.3	98,965.2	108,379.3
	심신장애	50,291.0	51,555.9	55,087.4	54,663.6	57,764.1	66,633.8	72,134.2	64,670.8	58,355.2	51,570.3	58,272.6
	진학준비	43,106.2	59,710.5	52,497.4	50,163.9	41,700.0	57,594.4	34,525.2	37,287.6	37,597.2	39,303.6	45,348.6
	입시학원 통학	35,421.7	32,674.5	28,124.7	32,684.2	39,432.7	22,203.5	26,550.5	29,543.0	34,350.1	47,454.9	32,844.0
	가사	24,315.6	24,335.8	19,079.2	24,930.8	27,378.5	25,119.1	22,010.1	20,547.0	18,717.5	19,966.5	22,640.0
	군입대 대기	18,303.3	22,068.1	27,753.1	24,234.7	19,270.8	20,860.5	17,331.7	14,448.0	10,886.8	11,304.9	18,646.2
지난 1년 구직 여부	없었음	262,788.0	248,088.8	266,232.8	280,839.6	343,973.9	426,562.8	400,849.4	358,240.8	306,105.5	312,381.1	320,606.3
	있었음	170,818.9	177,458.6	205,827.2	228,374.8	220,800.8	225,513.4	227,809.2	167,226.7	156,138.6	152,482.6	193,245.1
비구직 사유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5,391.5	125,775.4	126,449.8	136,901.5	160,778.0	190,830.8	188,660.6	171,481.0	164,466.0	155,764.2	154,649.9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92,016.3	120,934.3	158,553.9	176,982.9	195,272.2	189,662.7	164,192.5	150,785.2	132,705.2	132,986.8	151,409.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81,601.3	71,152.3	81,939.1	78,854.5	89,255.6	111,475.6	112,743.3	96,991.7	89,172.1	102,468.9	91,565.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49,719.4	54,901.2	46,265.2	48,936.3	47,440.4	65,966.7	69,094.9	45,556.1	35,446.3	33,845.9	49,717.2

〈표 3-9〉의 계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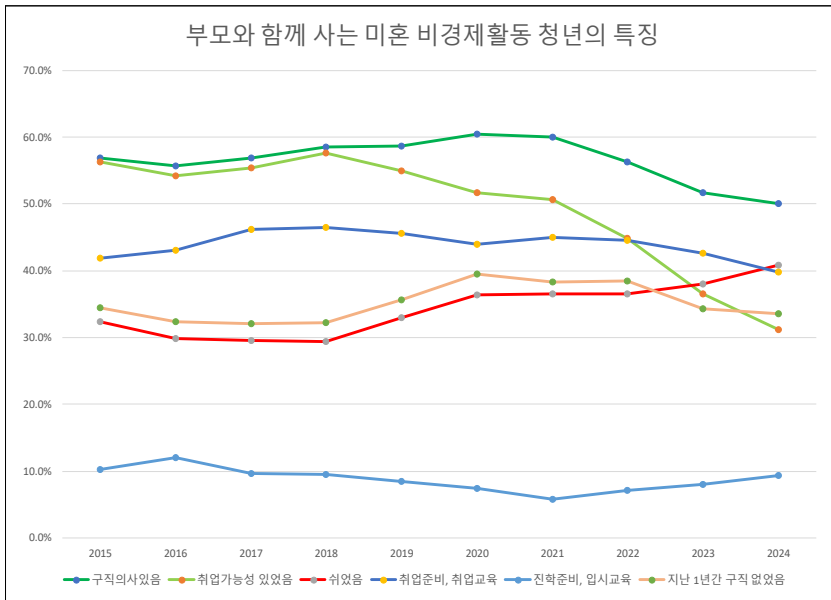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평균
구직의사	예	56.9	55.6	56.9	58.5	58.6	60.4	60.0	56.3	51.8	50.0	56.5
	아니요	42.5	43.7	42.2	40.7	40.5	38.7	38.8	42.2	46.9	48.8	42.5
취업 가능성	있었음	56.2	54.2	55.4	57.7	54.9	51.7	50.7	44.8	36.6	31.2	49.4
	없었음	0.7	1.5	1.5	0.8	3.7	8.6	9.3	11.5	15.2	18.8	7.2
지난주 상태	쉬었음	32.4	29.8	29.6	29.5	33.0	36.4	36.6	36.5	38.0	40.8	34.3
	취업준비	28.1	29.8	33.2	33.2	30.9	31.6	34.9	34.9	33.2	29.2	31.9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13.8	13.3	13.0	13.4	14.7	12.3	10.1	9.6	9.5	10.6	12.0
	심신장애	6.6	6.7	6.6	6.3	6.0	6.2	6.9	6.9	6.5	5.5	6.4
	진학준비	5.7	7.8	6.3	5.8	4.3	5.3	3.3	4.0	4.2	4.2	5.1
	입시학원 통학	4.7	4.3	3.4	3.8	4.1	2.1	2.5	3.2	3.8	5.1	3.7
	가사 군입대 대기	3.2 2.4	3.2 2.9	2.3 3.3	2.9 2.8	2.8 2.0	2.3 1.9	2.1 1.7	2.2 1.5	2.1 1.2	2.1 1.2	2.1 2.1
지난 1년 구직 여부	없었음	34.5	32.4	32.1	32.3	35.7	39.5	38.3	38.4	34.3	33.6	35.1
	있었음	22.4	23.2	24.8	26.2	22.9	20.9	21.8	17.9	17.5	16.4	21.4
비구직 사유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6.5	16.4	15.2	15.7	16.7	17.7	18.0	18.4	18.4	16.8	17.0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2.1	15.8	19.1	20.3	20.3	17.6	15.7	16.2	14.9	14.3	16.6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7	9.3	9.9	9.1	9.3	10.3	10.8	10.4	10.0	11.0	10.1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6.5	7.2	5.6	5.6	4.9	6.1	6.6	4.9	4.0	3.6	5.5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한편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 집단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표 3-9>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비경제활동 청년의 구직의사 및 활동상태, 비구직 사유 등을 비중이 높은 상위 응답유형별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응답유형 중 빈도수가 1% 미만인 응답들은 가독성을 위해 표에서 제외하였다. 전술하였듯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계에 따라 취업가능성, 비구직 사유, 지난 1년간 구직 여부와 같은 문항들은 구직의사를 묻는 문항에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만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응답유형별 비중을 다 합쳐도 1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3-5]는 <표 3-9>를 활용하여 이 집단의 구직의사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우선, ‘구직의사 있음’ 비율은 2016년 약 55%대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 이르기까지 50%로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 집단 내에서도 경제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

[그림 3-5] 연도별 미혼자녀 비경제활동 청년의 특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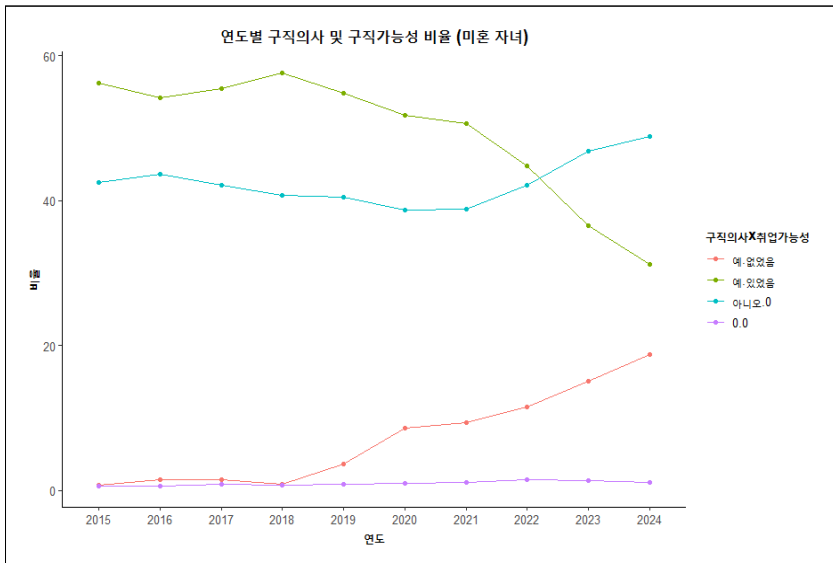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동일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진 점이다. 그래도 이 집단에서 고무적인 점은 취업준비 및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비중이 4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이고, 진학 및 입시기관에 통학하는 경우도 약 10%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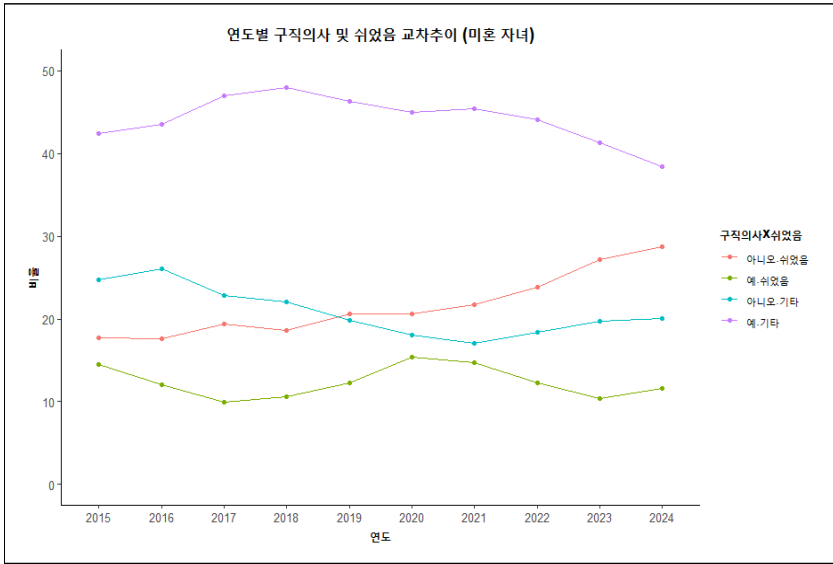
[그림 3-6]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비경제활동 청년 집단의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을 분할표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 집단의 경우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이었던 비중이 2015년 56% 이상 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급감하여 202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녹색 선). 그리고 이 감소세는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가능성을 없다고 보는 비중의 증가로 설명된다(적색 선). 흥미로운 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에게 묻는 취업가능성이란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와 같이, 당장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란 점이다. 즉 본인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것에 가깝다.

[그림 3-6]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구직가능성 교차비율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그림 3-7] 미혼자녀 집단의 구직의사 · 쉬었음 교차비율



자료 : 통계청, MD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4년.

[그림 3-7]은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비경제활동 청년 집단의 구직의사와 주 활동상태를 교차분석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구직의사가 있는 쉬었음 인구는 10%, 구직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가 20% 내외이다. 반면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기타 사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인구가 이 집단의 경우 40%가 넘는다.

#### 4. 요약

본 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19세에서 39세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인구학적 특징 및 구직의사, 주된 활동상태, 이전 직장 경험 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비경제활동 청년은 전체로 보았을 때 20대 초중반과 30대 중반에 집중돼 있는 쌍봉 형태의 연령 분포를 가졌지만, 이는 20대 초중반에 집중돼 있는 남성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와, 20대 초반 및 30대 중반에 집중돼 있는 여성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가 반영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77%가 최근 구직의사가 없었으며, 22% 정도는

구직의사가 있었음에도 최근 4주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비구직 사유로는 외부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내부적 역량 부재에 대한 불만이 37% 대 43%로 비등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3%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2는 “정규교육기관 통학”, “육아”, “쉬었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였다. 정규교육기관 통학의 경우 인구 대비 비중이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육아” 상태인 인구가 26.8%에서 1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쉬었음” 상태인 인구는 동일 기간 10.5%에서 20%로 약 두 배 상승하였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69.1%이며, 퇴직한 지 1년이 넘는 청년이 1년 미만의 청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한편 직장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청년도 30%에 달하였는데, 19~39세 비경제활동 인원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이 20%에 달하므로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 퇴직 사유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개인·가족 사유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이 16.9%였다. 이처럼 자발적인 사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청년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 외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청년이 3분의 1인데 주된 사유는 임시직 종료(14.3%), 육아(7.1%) 등이었다.

분할표를 활용한 교차분석에서는 6,912개의 가능한 조합 중 상위 5개 그룹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약 45.6%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위 15개 그룹을 의미 있는 단위로 재그룹화하여 기술하면, 부모와 함께 살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가 21.7%, 학업을 마친 뒤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이 23.9%, 학업을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또는 4년제 졸업자인 남녀 약 16.8%였다. 그밖에 특징적인 집단으로는 군입대 대기 중인 것으로 유추되는 4년제 대학 휴학 중인 미혼 남성 2.63%, 4년제 대학을 재학 중이면서 가구주로 독립해 살고 있는 미혼 남성 1.63%가 있었다.

이 중 재학생 집단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과 미혼이면서 가구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졸업자 남녀 두 집단을 대상으로 2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연령 분포의 차이만큼이나 구직의사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 여성 비경제활동 청년은 나이가 많을수록, 최근 연

도에 들어서 더 비중이 컸으며 이들의 94%가량이 구직의사가 없어서, 추후의 비구직 사유나 활동상태에 있어서 추가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남녀 졸업자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구직의사 있음’ 비중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지만 2016년 약 55%대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으로 읽힐 수 있는데,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동일 기간 54%에서 31%로 떨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집단의 경우 구직의사와 취업가능성에 모두 긍정적이었던 비중이 2015년 56% 이상이었는데 코로나19의 영향 이후 급감하여 2024년에는 31%까지 낮아졌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졸업생 미혼자녀 집단의 경우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인이 충분하다 볼 수 있다. 이 집단 내에서 구직의사를 갖고 있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며,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중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비경제활동 상태의 유형으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쉬었음’이 단일 유형으로는 30% 정도로 가장 크지만, 구직의사와 연계해서 관측하였을 때, 구직의사가 있는 쉬었음 인구는 10%, 구직의사가 없는 쉬었음 인구가 20% 내외이다. 반면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기타 사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인구가 이 집단의 경우 40%가 넘는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단순히 ‘쉬었음’이라는 지표를 벗어나 활동상태코드와 비경제활동 기간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제3절 비구직 청년의 동태적 특성

이 절에서는 19~3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 이행(transition)을 살펴보고, 이행 패턴을 그룹화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시계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데이터

비구직 청년의 동태적 특성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의 1~26차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KLIPS는 노동 관련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널자료를 생산하여 노동시장 이행 및 소득 소비 변화 등 노동시장의 동적인 특성들을 연구하여 정책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종단 조사이다. 1998년 도시지역을 대표하는 5,000가구의 가구원 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 27차(2024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가용한 데이터는 26차 조사까지의 데이터이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1~26차 전체 자료 중 응답 당시의 만 연령이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자료(125,682건, N=18575) 만을 추출하여 이용하였으며, 분석마다 특수성에 따라 표본의 크기에 감소가 있었다.

## 2. 관심변수 및 분석 방법

〈표 3-10〉은 KLIPS 문항 중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별 경제활동 이행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본 절에서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별로 연령이 19세에서 39세 사이일 때의 관측치를 확인하고 결측값 여부를 확인하였다. 종단자료의 경우 조사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개인별로 시계열 자료의 길이가 다르다. 한편

〈표 3-10〉 동태분석 관련 KLIPS 관심변수

변수명	조사 문항 내용
pid	개인고유번호
p_age	가구원나이
p_econstat	ILO기준경제활동(1=취업자, 2=ILO 기준 실업자, 3=비경제활동자)
p_edu	교육수준(1=무학, 2=고졸 미만, 3=고졸, 4=대재/중퇴, 5=전문대졸, 6=대졸 이상)
p_sex	성별(1=남자, 2=여자)
wave	패널차수

자료 : 저자 작성.

편, 응답자의 잔존을 또한 차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보이는 결측값이 응답 당시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서인지 혹은 해당 차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결측값을 대체하지 않았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상황 변수에 대하여 다중 대체법을 통해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대체 방법으로는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고려 변수로는 성별과 교육변수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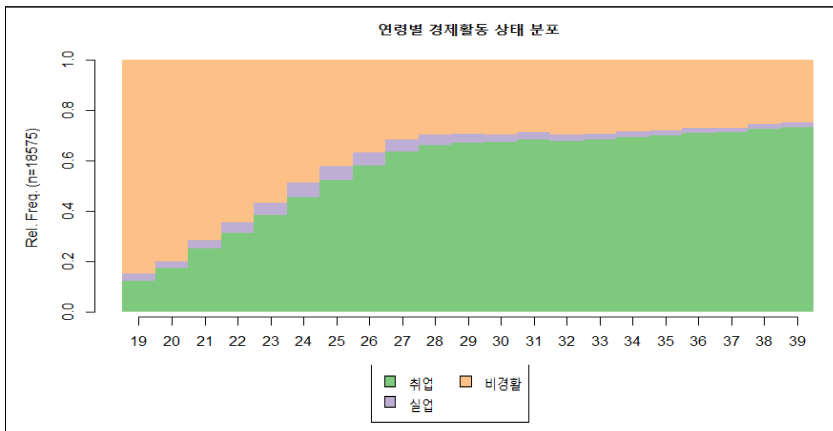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마친 후, 조사차수 · 출생연월에 상관없이 전체 청년 종단자료에 대해서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R을 사용하였으며(R Core Team, 2024), 시퀀스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TraMineR', 'dtwclust', 'ggplot2' 패키지 등을 이용하였다.

### 3. 분석 결과

#### 가.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분포

[그림 3-8]은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경제활동

[그림 3-8] 연령 도달에 따른 경제활동 상태 분포



주: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KLIPS 1~26차.

인구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KLIPS 자료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전환하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눈여겨 볼 부분은 취업+실업의 비중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만 27세를 기점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된다. 즉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취업 청년과 비경제활동 청년 모두 일종의 안착기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연령별 직전 연도 대비 경제활동 상태 변화 양상

〈표 3-11〉은 전년도 특정 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른 청년 인구 중 차년도의 각 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비율을 19~39세 연령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다. 표의 상단 패널은 전년도의 각 경제활동 상태를 1로 보았을 때, 차년도의 특정 경제활동 상태 이행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행렬의 대각 부분이 상태의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비경제활동’의 78%는 ‘비경제활동’에, ‘취업’ 인구의 87%는 ‘취업’ 상태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9〉는 19~39세 청년들의 직전 연도 경제활동 상태 대비 다음 해의 이행과정을 sankey diagram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상단의 막대가 “비경제활동”, 가운데 작은 비중의 막대가 “실업”, 하단의 막대가 “취업” 인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며, 회색 음영은 각 경제활동 상태의 인구가 다음 기(1년 후)에 어느 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즉 회색 음영이 짙고 두꺼울수록 상태 간의 전이가 잘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로 한국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의존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만 28세 이전에는 그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 간의 상태 전이가 꾸준히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만 28세 이후에는 경제활동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표 3-11〉 전년도 상태 대비 차년도 경제활동 상태 이행 비율(19~39세 평균)

(상대비율, 행 기준)

(행→열)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
비경제활동	0.78	0.03	0.19
실업	0.34	0.15	0.50
취업	0.11	0.02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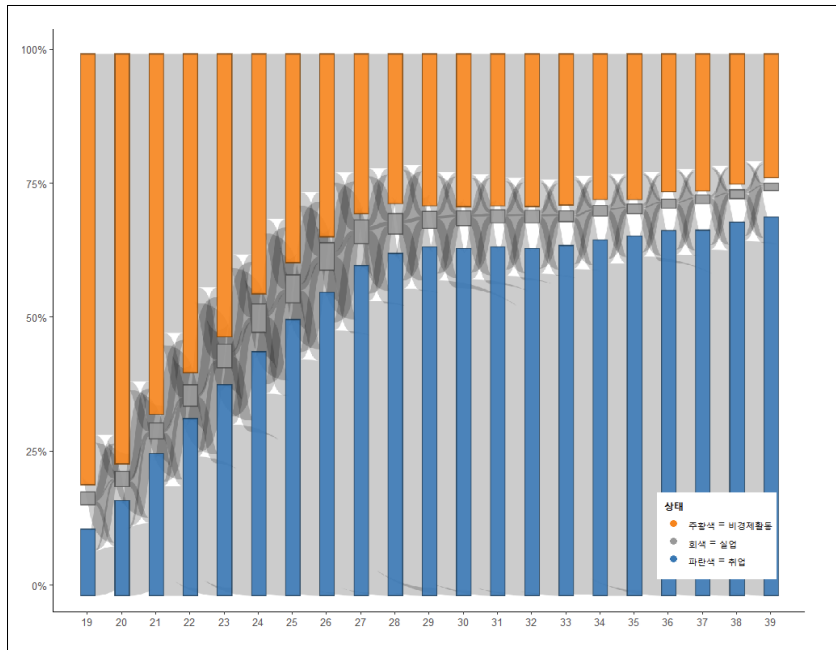
(상대비율, 전체 기준)

(행→열)	비경제활동	실업	취업
비경제활동	0.32	0.01	0.08
실업	0.01	0.01	0.02
취업	0.05	0.01	0.50

주 :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 KLIPS 1~26차.

〈그림 3-9〉 경제활동 상태 이행과정(19~3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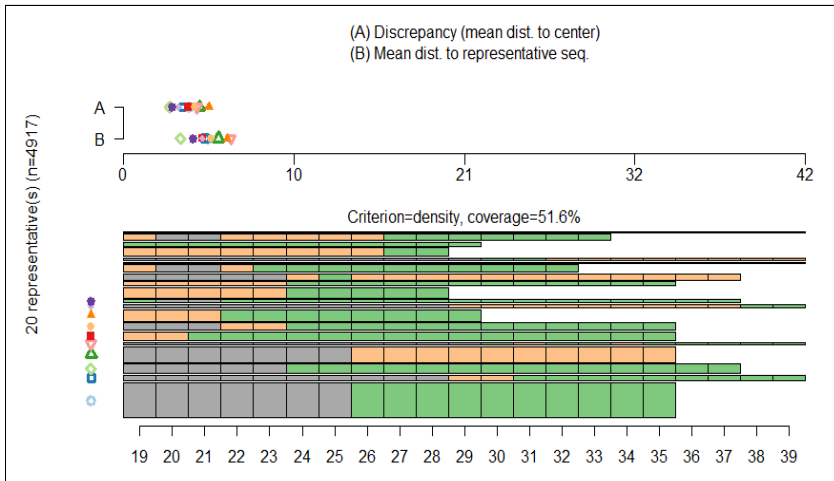
주 :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 KLIPS 1~26차.

다. 상위 20개 대표 경제활동 상태 시퀀스

[그림 3-10]은 19~3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개별 시퀀스로 만들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상위 20개 시퀀스를 시각화한 것이다. 앞선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녹색은 취업 상태, 회색은 실업, 주황색은 비경제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청년 집단의 상당수는 만 25~26세 사이에 경제활동 상태에 큰 분기점을 맞는다. 다년간의 실업 상태를 겪은 뒤 취업 상태에 안착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안착하는 것이다. 실업을 거쳐 비경제활동으로 안착하는 집단의 경우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비중은 작지만 유사한 패턴이 28세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시퀀스도 존재한다. 이는 성별 차이 혹은 더 높은 교육수준의 추구로 인해 발생한 시간차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3-10] 청년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변화 상위 20개 시퀀스



주: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KLIPS 1~2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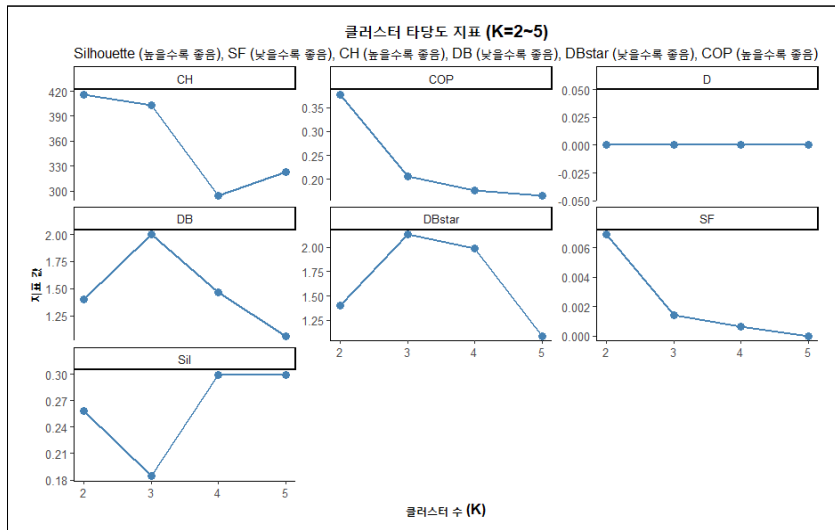
라. 클러스터링을 통한 경제활동 상태 시퀀스 유형화

[그림 3-11]과 [그림 3-12]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경제활동 상태 시퀀스로부터 유형화된 패턴을 찾기 위해 시계열 클러스터링을 수행

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는 시계열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DTW(dynamic time warp, Sarda-Espinosa, A, 2019)를 사용하여 시퀀스 간 유사도를 거리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분석에는 R 패키지 'dtwclust'의 'tsclust' 함수가 사용되었다. 분석에서 사용한 partitional 타입의 알고리즘의 경우 개별 시퀀스들을 1대 1 매칭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시퀀스의 개수 N에 따라 비교 쌍이  $N(N-1)/2$ 로 지수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컴퓨팅 리소스 한계로 인해 18,575건의 시퀀스 중 1,000개를 임의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약 1.7억 개의 비교 쌍 대신 약 50만 개의 쌍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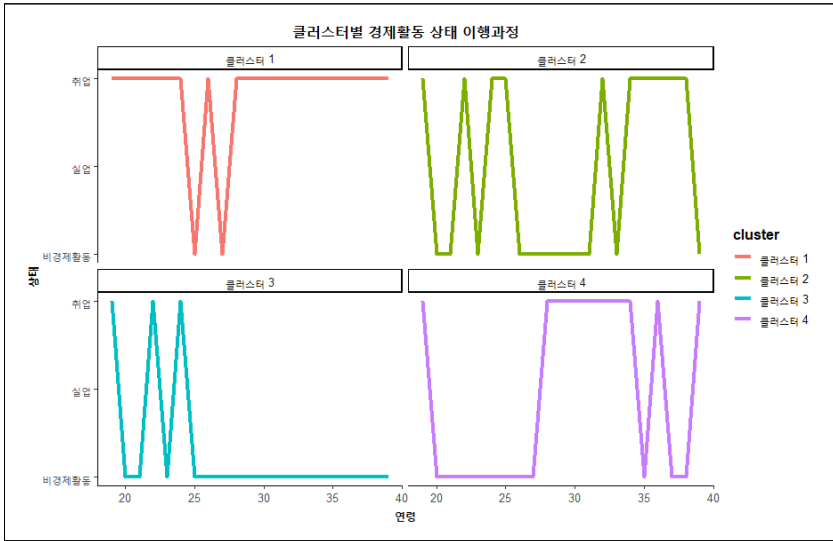
최적 클러스터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 클러스터 개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린 후 실루엣을 포함하여 7개의 타당도 지표를 비교하였고(그림 3-11), 지표별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클러스터가 현재의 시계열 자료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12]는 각 클러스터의 연령별 중심점(Centroids)을 연결하여 시각화한 것으로, x축은 19~39세까지의 연령을, y축은 상단이 취업, 중간이 실업, 하단이 비경제활동에 해당한다. 시각

[그림 3-11] 시계열 클러스터링 타당도 지표(K=2~5)



주: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KLIPS 1~26차.

[그림 3-12] 클러스터별 경제활동 상태 평균경로



주: 응답 시 연령 19~39세 표본 추출.  
 자료: KLIPS 1~26차.

화된 결과를 보았을 때, 청년 집단에서 최소 4가지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클러스터(빨간색)는 꽤 이른 시기부터 취업하여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두 번의 짧은 노동시장 이탈 후 다시 긴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기 취업 및 안정화’ 혹은 상승이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클러스터(녹색)는 이직이 잦고 노동시장 이탈이 긴 편이나 30대 이후에 취업을 유지하는 ‘후기 안정화’ 유형으로 보인다. 세 번째 클러스터(하늘색)는 초기 잦은 이직 이후에 비노동력화가 장기 진행된 유형으로 보인다. 마지막 클러스터(보라색)는 20대 중반까지 비경제활동 상태였다가 취업 후 30대 중반까지 노동시장에 유지한 후, 다시 긴 노동시장 이탈을 보이는 유형으로, 번아웃 혹은 후기 비노동력화 유형으로 판단된다.

#### 4. 요약

본 절에서는 KLIPS 문항들을 활용하여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어떤 이행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활용한 2절의 횡단적 분석에서 얻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30대에 가까워질수록 취업 인구가 증가하고 안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종단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우선 직전 연령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다음 해에 어떤 경제활동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행 행렬(Transition matrix)의 연도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판단하였다. 그 결과, 행렬의 대각 부분에 해당되는 “직전 상태와 동일”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의 존성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개인별 노동시장 이행 패턴에 있어서 상위 20개의 대표적인 시퀀스를 추출하였다. 전체 표본의 약 절반가량이 이 20개의 시퀀스로 설명되었고, 그 중 특징적인 패턴으로는 25~26세 직전까지 실업을 경험한 집단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안착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여 안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1,000명의 표본에 대해 시계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결과는, 청년 집단에서 최소 4가지 유형(조기 취업 및 안정화, 반복 이직·취업 후 안정화, 반복 이탈 후 비노동력화, 번아웃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조사와 KLIPS 문항들을 활용하여 19세에서 39세 사이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인구학적 현황과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 패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발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구직 청년 인구는 연령 분포가 전반적으로 이중봉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20대 초중반과 30대 중반에 각각 밀집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남성은 20대 초중반에, 여성은 혼인과 출산 등으로 인해 30대 중반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 또

는 연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경제활동 청년 중 다수가 과거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장을 떠난 주된 이유는 개인적 및 가족적 사유, 임금과 근로조건 불만족 등 자발적인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직장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청년도 30%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특성상 교육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분할표를 활용한 교차분석 결과 비경제활동의 60%가량은 크게 세 집단의 존재로 설명되었다. 부모와 함께 살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21.7%), 학업을 마친 뒤 배우자와 살고 있는 기혼 여성(23.9%), 학업을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고졸 또는 4년제 졸업자인 남녀(16.8%)인데, 이 중 졸업생 미혼자녀 집단을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볼 유인이 많다. 기혼 여성 집단의 경우 구직의사가 없음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장기화된 추세이다. 만약 이 집단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구직 단념이 고착화되기 이전의 타이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졸업생 미혼자녀 집단은 구직의사를 갖고 있는 인원이 절반 이상인 면이 긍정적이나 최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집단 내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쉬었음 인구는 10% 내외로,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기타 사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40%에 한참 못 미친다. 단순히 '쉬었음'이라는 지표를 벗어나 활동상태코드와 비경제활동 기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직의사가 없는 쉬었음의 비중 또한 20% 내외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집중할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KLIPS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규모의 측면에서는 만 26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화되고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청년층은 일정 연령을 기점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쉽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령별 전후 경제활동 상태의 이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26세보다는 조금 뒤인 28세까지 전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 경제활동 상태별 유입과 유출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2

년이 존재한다. 경제활동 상태의 상위 20개 시퀀스를 살펴보면, 청년의 상당수가 25~26세 기점에 안정화 과정을 거쳐 취업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다년간의 실업을 거쳐 비경제활동으로 빠지는 집단은 한 번도 취업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인데, 주의가 필요하다. 1,000명의 표본에 대해 시계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결과는, 청년 집단에서 최소 4가지 유형(조기 취업 및 안정화, 반복 이·취업 후 안정화, 반복 이탈 후 비노동력화, 번아웃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구직 청년 집단은 단일한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하위집단 간의 이질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하위집단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서 선행적으로 포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제 4 장

### 비구직 청년의 잠재 하위집단 탐색

앞선 제2장과 제3장의 분석을 통해 비경제활동 청년의 집단 내 이질성 및 동태적 변화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일 문항이나 개별 속성으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잠재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구직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잠재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제1절 연구 방법

### 1. 데이터

본 장의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9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대표적 종단 패널조사로,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심리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 비구직 청년의 잠재적 하위집단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대상은 응답 당시 만 19세에서 39세의 비경제활동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결측

치가 있는 데이터는 다중 대체법(MICE)을 이용해 대체하였다.

데이터 범위를 19차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KLIPS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는 3차, 9차, 19차이다. 먼저 연구의 목적상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다음으로 3차에서 19차를 모두 포함할 경우 청년 연령을 19~39세로 설정한 본 연구의 특성상 출생연도와 조사 참여시기에 따라 종단자료에 다량의 결측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19차 조사의 부가조사에만 유일하게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자존감, 사회적 지지,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문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19차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탐색적 집단 분해를 시도하는 것이 후속 연구에서 20차 이후 청년들의 경제활동 패턴을 추정하는 데에 선결 요건이라 판단하였다.

### 가. 기본통계

〈표 4-1〉은 분석에 사용한 자료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가구주의 연령(h\_hage)은 최소 19세에서 최대 94세에 이르며, 평균은 약 44.4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소득 10분위 수준(h\_incomeq)은 1에서 10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이 약 6.8 수준으로 조사되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분포가 많음을 시사한다. 가구원 수(h\_num)는 평균 3명으로, 1인 가구부터 최대 8인 가구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층이 비교적 다양하고,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 역시 개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19차 부가조사 문항들은 표본 중 2,552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3 점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혼인 상태를 보면, 미혼(51.7%)과 기혼(48.3%)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 표본 내 혼인 여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관계에서는 자녀(4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구주(31.9%)와 배우자(25.7%) 순으로 나타나, 상당수 응답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임을 시사한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집계되어, 여성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혼인, 가구주 관계, 성별 모두에서 한쪽으로 극단적인 편중 없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관심변수(연속) 기술통계

변수명	설명	N	mean	sd	min	max
h_hage	가구주 나이	4,045	44.45	12.28	19	94
h_incomeq	소득 10분위	3,968	6.83	2.32	1	10
h_num	가구원 수	4,045	3.33	1.19	1	8
p_age	가구원 나이	4,045	30.68	6.18	19	39
a199417	(첫일자리) 전공분야와 업무내용 일치 정도	1,084	2.31	1.11	1	4
a199418	(첫일자리) 업무와 교육 정도	1,084	2.18	0.56	1	3
a199601	정부 청년층 고용대책 관심 정도	2,555	2.58	1.01	1	5
a199603	정부 청년층 고용대책 지식 수준	1,423	2.79	0.63	1	5
a199707	(청년활력지수) (4) 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	2,554	3.13	0.90	1	5
a199708	(청년활력지수) (5)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554	3.20	0.91	1	5
a199709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1) 우리사회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_	2,552	3.10	0.88	1	5
a199710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2)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_	2,552	3.23	0.88	1	5
a199711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3)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	2,552	2.98	0.88	1	5
a199712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4)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	2,552	3.31	0.90	1	5
a199713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5) 우리사회가 이만큼 오기까지는 기_	2,552	3.54	0.75	1	5
a199714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6)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_	2,552	2.85	0.92	1	5
a199715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7) 청년세대는 우리사회로부터 충분한	2,551	2.77	0.84	1	5

〈표 4-1-1〉의 계속

변수명	설명	N	mean	sd	min	max
a199716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의 인식) (8)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	2,552	2.61	0.87	1	5
a199717	(자존감)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2,552	3.28	0.77	1	5
a199718	(자존감)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2,552	2.53	0.91	1	5
a199719	(자존감)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2,552	2.55	0.91	1	5
a199720	(자존감) (4)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2,552	2.43	0.85	1	5
a199721	(자존감)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552	3.61	0.81	1	5
a199722	(자존감)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2,552	2.47	0.81	1	5
a199723	(자존감)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552	2.14	0.88	1	5
a199724	(자존감) (8) 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2,552	3.42	0.91	1	5
a199725	(자존감)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	2,552	1.98	0.86	1	5
a199726	(자존감)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2,552	2.15	0.90	1	5
a199727	(자존감)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2,552	3.47	0.89	1	5
a199728	(사회적 지지) (1)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_	2,552	3.33	0.73	1	5
a199729	(사회적 지지) (2)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	2,552	3.42	0.73	1	5
a199730	(사회적 지지) (3) 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 준다.	2,552	3.53	0.71	1	5
a199731	(사회적 지지) (4)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준다	2,552	3.50	0.68	1	5
a199732	(사회적 지지) (5)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_	2,552	3.50	0.69	1	5

〈표 4-1-1〉의 계속

변수명	설명	N	mean	sd	min	max
a199733	(사회적 지지) (6)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	2,552	3.50	0.71	1	5
a199734	(사회적 지지) (7) 주위 사람들과 종종 다툰다.	2,552	2.06	0.80	1	5
a199735	(사회적 지지) (8) 주위 사람들이 나의 신경을 건드린다.	2,552	2.16	0.80	1	5
a199736	(사회적 지지) (9) 주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못 이해한다	2,552	2.29	0.82	1	5
a199737	(사회적 지지) (1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2,552	2.33	0.80	1	5
a199738	(사회적 지지) (11)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해하거나 화난태도로 대한	2,552	2.00	0.77	1	5

자료: 저자 작성.

〈표 4-1-2〉 관심변수(범주) 기술통계

		빈도	유효값 기준(%)	전체(%)
혼인	미혼	2,090	51.7	51.7
	기혼	1,955	48.3	48.3
	Total	4,045	100.0	100.0
가구주 관계	가구주	1,291	31.9	31.9
	미혼자녀	1,619	40.0	40.0
	배우자	1,038	25.7	25.7
	기타	97	2.4	2.4
	Total	4,045	100.0	100.0
성별	남자	1,998	49.4	49.4
	여자	2,047	50.6	50.6
	Total	4,045	100.0	100.0
대학원 경험	있다	1,158	91.8	28.6
	없다	104	8.2	2.6
	결측	2,783		68.8
	Total	4,045	100.0	100.0
취업준비 경험	있다	1,306	51.1	32.3
	없다	1,250	48.9	30.9
	결측	1,489		36.8
	Total	4,045	100.0	100.0
고시 경험	있다	26	16.6	0.6
	없다	131	83.4	3.2
	결측	3,888		96.1
	Total	4,045	100.0	100.0
중소기업 취업 의사	있다	276	53.3	6.8
	없다	242	46.7	6.0
	결측	3,527		87.2
	Total	4,045	100.0	100.0
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있다	132	47.8	3.3
	없다	144	52.2	3.6
	결측	3,769		93.2
	Total	4,045	100.0	100.0

〈표 4-1-2〉의 계속

		빈도	유효값 기준(%)	전체(%)
직업훈련 참여 의사	있다	109	21.0	2.7
	없다	409	79.0	10.1
	결측	3,527		87.2
	Total	4,045	100.0	100.0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있다	95	87.2	2.3
	없다	14	12.8	0.3
	결측	3,936		97.3
	Total	4,045	100.0	100.0
첫 일자리 여부	있다	217	16.6	5.4
	없다	1,089	83.4	26.9
	결측	2,739		67.7
	Total	4,045	100.0	100.0
경제적 독립 여부	예	1,200	46.9	29.7
	아니요	1,356	53.1	33.5
	결측	1,489		36.8
	Total	4,045	100.0	100.0

자료 : 저자 작성.

취업 관련 태도와 경험에 대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대학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1.8%, 취업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1%로 높아, 상당수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별도의 준비 활동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독립 여부에서는 ‘독립하지 못했다’는 응답(53.1%)이 ‘독립했다’는 응답(46.9%)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 2. 분석 모형

잠재집단 분석(LCA : latent class analysis)은 관측된 범주형 변수 간의 응답 패턴을 바탕으로, 관측되지 않는 잠재적인 집단을 도출하는 확률적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별, 연령, 일 경험 유무, 교육수준, 심리적 취

약성(우울감, 자기효능감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탐색한다.

잠재집단 분석의 일반적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P(Y_i) = \sum_{k=1}^K \pi_k \prod_{j=1}^J P(Y_{ij} = r_{ij} | C_i = k)$$

여기서  $P(Y_i)$ 는 응답자  $i$ 의 반응 패턴  $Y$ 의 확률,  $\pi_k$ 는 집단  $k$ 에 속할 확률,  $r_{ij} = 1, 2, \dots, R_j$ 는 응답자  $i$ 의  $j$ 번째 범주 변수의 관측값,  $C_i$ 는 잠재집단 멤버십 변수로, 아래와 같은 확률질량함수를 갖는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P(X_1 = x_1, X_2 = x_2, \dots, X_k = x_k) = \frac{n!}{x_1! x_2! \dots x_k!} p_1^{x_1} p_2^{x_2} \dots p_k^{x_k}$$

위의 다항분포에서  $k$ 가 2이고  $n$ 이 1인 특수한 경우가 베르누이 분포이며,  $n$ 이 1보다 큰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분포이다.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관측변수들의 국소독립성(Local independence) 또한 가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계층 내 관측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부 독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잠재집단 분석의 추정방식은 주로 기댓값-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E-M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는 먼저 잠재집단 변수의 조건부 확률을 추정(expectation 단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형의 파라미터를 최적화(maximization 단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도 변화량이 최소 기준 이하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시키는 방식이다.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각 범주형 변수가 지니는 가능한 응답 조합의 수가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변수 수가 많아지면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진 변수  $X$ 개를 사용하면 가능한 응답 패턴은  $2^X$ 가지가 되고, 이 중 대부분은 표본에서 거의 관측되지 않아 파라미터 추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엄격한 한계치는 없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보통 10~20개 정도의 indicator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예: Nylund, Asparouhov and Muthén, 2007; Collins and Lanza, 2010)에

서는 indicator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모델의 수렴 문제, 해석의 어려움, 그리고 과적합 가능성이 커짐을 지적한다. <표 4-1>의 많은 변수 개수로부터 발생할 차원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차 부가자료에서 동일 심리구성개념을 측정할 것으로 기대하여 설계된 문항들(사회적 지지, 자존감,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으로 차원 축소를 시도하고 요인점수를 활용하였다.

## 제2절 분석 결과

### 1. 요인 분석 결과

먼저 KLIPS 19차 자료에서 3개의 요인(청년의 사회에 대한 인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치가 조사의 의도대로 구성개념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성 지표 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은 CFI(>.8), RMSEA(<.1) 등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측정 문항들의 잔차공분산이 매우 커 동일 요인으로 묶이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지 문항들을 제외한 2요인 모델을 다시 구성하여 분석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나 최소한의 기준(RMSEA<.1)을 통과하여, 2요인 모델에서 추정된 요인 점수만을 잠재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잠재집단 분석 결과

잠재집단 분석에서 최적의 집단 수를 판단할 때는 주로 베이지안 정보 기준(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아카이케 정보 기준(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우도 비율(Likelihood ratio) 검정, Entropy 값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BIC와 AIC의 값이 가장 낮고, Entropy는 0.8 이상일 때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도 비율 검정은 잠재집단 수의 조정에 따

른 모수의 추가에 따라 자유도의 축소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 결과, 최적의 집단 수는 10개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 지숫값은 <표 4-2>에 정리하였다. 비록 데이터 주도의 접근법에서 10개까지 잠재집단의 수를 늘리더라도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10집단 모형의 경우 집단의 질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상태를 3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하여, 잠재집단의 개수를 3개로 설정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고, 각 경제활동 상태 그룹이 추정된 잠재집단과 매칭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3집단 모형의 결과표는 <표 4-3>, <표 4-4>에 정리하였다. 다층 잠재집단 분석 결과 비경제활동 청년은 집단 1과 2에 소속될 확률이 높고, 실업 청년은 집단 2에, 취업 상태인 청년은 집단 3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응답패턴에 기반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1은 본 연구 제3장의 기술 분석에서 포착되었던 기혼 배우자 여성 집단으로 보인다. 이 집단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약 24.6%를 차지하는데, 후술할 집단 3과 성별을 제외하고는 매우 흡사한 이력 및 특성을 갖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 그룹별로 보면, 취업 중인 청년의 약 18%, 비경제활동의 약 36.5%가 집단 1에 해당

<표 4-2> 잠재집단 모형의 적합도 지수(K=2~10)

잠재 집단 수	loglik	AIC	BIC	entropy	df	LRT $\Delta=-2(LL_{\text{nested}}-LL_{\text{full}})$	p-value
2	-24805.19	49700.37	49984.11	1.00	3999		
3	-23456.01	47062.01	47534.91	1.00	3969	2698.36	0.00
4	-21931.1	44072.19	44734.24	0.98	3939	3049.82	0.00
5	-21126.96	42523.92	43375.13	0.97	3909	1608.28	0.00
6	-20700.73	41731.45	42771.82	0.97	3879	852.46	0.00
7	-20254.74	40899.47	42128.99	0.97	3849	891.98	0.00
8	-20030.04	40510.08	41928.75	0.96	3819	449.4	0.00
9	-19832.57	40175.14	41782.97	0.96	3789	394.94	0.00
10	-19585.67	39741.33	41538.33	0.97	3759	493.8	0.00

자료: 저자 작성.

〈표 4-3〉 3집단 모형의 잠재집단 비중(그룹별)

Marginal prevalences for latent classes			
	Class1	Class2	Class3
	0.246	0.419	0.334
Class prevalences by group			
	Class1	Class2	Class3
취업	0.180	0.303	0.517
실업	0.068	0.765	0.167
비경활	0.365	0.591	0.042

자료 : 저자 작성.

하며 대표적인 특징은, 높은 대학원·취업준비·고시 경험, 중소기업 비선호, 첫 일자리 경험이 있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사도 높으며,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집단 2의 경우, 제3장에서 살펴본 미혼자녀의 프로파일과 흡사하다. 전체 표본에서 41.9%, 그룹별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 그룹에서 비중이 특히 높다. 주요 특징으로는 남녀가 유사한 비율이고, 상대적으로 고시·취업준비 경험이 낮은 편이며,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타 집단에 비해 높지만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타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이 집단의 구성원은 일자리 경험이 없을 확률이 4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4%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마지막으로 집단 3의 경우 취업에 강점이 큰 청년의 프로파일로 판단된다. 전체 표본에서 33.4%, 취업자 그룹에서 약 5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혼인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고시준비 경험은 적은 편이다. 첫 일자리 경험 비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며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각 잠재집단의 소속 확률에 공변량이 미치는 영향은 〈표 4-5〉와 〈표 4-6〉에 정리하였다. 먼저 집단 1(기혼 배우자 여성)과 집단 3(취업강점 집단)을 비교하자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주 나이가 많고

〈표 4-4〉 잠재집단별 추정된 문항 응답 확률

		기혼 여성 배우자	미혼자녀	취업강점 그룹
혼인 유무	미혼	0	0.983	0.312
	기혼	1	0.017	0.688
가구주 유무	가구주	0.037	0	0.927
	미혼자녀 배우자	0	0.954	0
		0.95	0	0.068
성별	남	0.003	0.551	0.783
	여	0.997	0.449	0.217
대학원 경험	있다	0.948	0.957	0.94
	없다	0.052	0.043	0.06
취업준비 여부	있다	0.736	0.424	0.76
	없다	0.264	0.576	0.24
고시준비 경험	있다	0.435	0.302	0.342
	없다	0.565	0.698	0.658
중소기업 취업 의사	있다	0.375	0.523	0.514
	없다	0.625	0.477	0.486
중소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있다	0.368	0.398	0.28
	없다	0.632	0.602	0.72
직업훈련 참여 의사	있다	0.145	0.172	0.18
	없다	0.855	0.828	0.82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있다	0.654	0.528	0.672
	없다	0.346	0.472	0.328
첫 일자리 유무	있다	0.875	0.57	0.932
	없다	0.125	0.43	0.068
경제적 독립 유무	예	0.976	0.16	0.973
	아니요	0.024	0.84	0.027

자료: 저자 작성.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구 소득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업강점 그룹에 비해 여성 취약 그룹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다. 첫 직장의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도, 내 집 마련 및 출산·육아에 대한 자신감, 사회안전

〈표 4-5〉 잠재집단 소속 확률에 대한 공변변수별 영향력(집단 3 대비 집단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dds Ratio	Coefficient	Std.E	t value	Pr(> t )	
가구주나이	4.893	1.588	0.037	43.2	<2e-16	****
가구주교육수준	1.12	0.113	0.035	3.2	0.001	**
가구소득10분위	1.5	0.406	0.017	23.3	<2e-16	****
가구원수	1.672	0.514	0.034	14.9	<2e-16	****
응답자나이	0.203	-1.592	0.038	-41.8	<2e-16	****
응답자교육수준	0.792	-0.233	0.037	-6.3	4.00E-10	****
전공-업무일치(-)	0.814	-0.205	0.03	-6.8	1.00E-11	****
교육수준-업무일치(-)	0.947	-0.054	0.06	-0.9	0.367	
청년층고용대책관심도	1.14	0.131	0.033	4	7.00E-05	****
청년층고용대책이해도	0.622	-0.475	0.052	-9.2	<2e-16	****
내집마련자신감	0.986	-0.014	0.046	-0.3	0.762	
출산및육아자신감	1.057	0.056	0.047	1.2	0.239	
사회인식(+)	0.972	-0.028	0.059	-0.5	0.632	
자존감(-)	0.773	-0.258	0.105	-2.5	0.014	*

자료 : 저자 작성.

망 인식 등은 집단 3 대비 집단 1의 승산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고연령, 고학력, 첫 직장의 전공 불일치,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낮은 자존감 등은 집단 3 대비 집단 1에 소속될 승산비를 낮추는 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집단 2(미혼자녀)와 집단 3 사이의 승산비에 영향을 주는 공변량을 살펴보면, 가구주 나이가 많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인 미혼자녀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과 많은 가구원 수, 응답자의 고연령 등은 취업강점 그룹 대비 취약 그룹으로 빠질 승산비를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첫 직장 업무의 전공 불일치 경험이 집단 2에 속할 승산비를 유의하게 올린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청년층 고용대책에 대한 강한 관심은 이 잠재집단의 소속 승산비가 높아지는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반면 내 집 마련

〈표 4-6〉 잠재집단 소속 확률에 대한 공변변수별 영향력(집단 3 대비 집단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dds Ratio	Coefficient	Std.E	t value	Pr(> t )	
가구주나이	7.535	2.02	0.039	51.4	<2e-16	***
가구주교육수준	0.803	-0.219	0.095	-2.3	0.021	*
가구소득10분위	1.557	0.443	0.055	8.1	1.00E-15	***
가구원수	0.515	-0.663	0.096	-6.9	6.00E-12	***
응답자나이	0.101	-2.292	0.046	-49.4	<2e-16	***
응답자교육수준	1.383	0.324	0.095	3.4	7.00E-04	***
전공-업무일치(-)	1.209	0.19	0.089	2.1	0.034	*
교육수준-업무일치(-)	0.981	-0.019	0.191	-0.1	0.92	
청년층고용대책관심도	1.311	0.271	0.103	2.6	0.009	**
청년층고용대책이해도	0.728	-0.317	0.164	-1.9	0.053	.
내집마련자신감	0.565	-0.571	0.18	-3.2	0.002	**
출산및육아자신감	0.71	-0.342	0.139	-2.5	0.014	*
사회인식(+)	1.339	0.292	0.197	1.5	0.14	
자존감(-)	1.489	0.398	0.28	1.4	0.155	

자료 : 저자 작성.

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이러한 취업취약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자존감 등은 이 그룹에서는 유의한 공변량이 아니었다.

### 제3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구직 청년 내 하위집단의 이질성을 잠재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 기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제1절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일 경험 등)과 심리사회적 지표(자존감, 사회적 지지, 사회안전망에 대

한 인식)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다중대체법(MICE) 및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차원을 축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제2절의 분석 결과, 해석이 용이한 수준에서 3집단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집단은 구직의사 및 취업준비 등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1은 주로 기혼 배우자 여성 집단으로 나타나, 높은 학력과 첫 직장 경험 확률, 다양한 취업 관련 준비 경험,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 경제적 독립 인식이 두드러졌다. 집단 2는 미혼자녀 집단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경험과 취업준비율, 높은 경제적 의존성 인식,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낮은 의사를 보이는 등 취업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집단 3은 취업강점 집단으로, 구직활동 및 첫 직장 경험 등에서 긍정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응답자 자신의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이 각 집단의 소속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구직 청년의 하위집단 구분에 있어 다각적인 요인이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분석에서 공변량들의 효과가 잠재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가구주 나이와 가구 소득은 잠재집단 1(기혼 배우자 여성)과 잠재집단 2(미혼자녀)에서 모두 집단 3(취업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승산비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 자신의 교육수준, 첫 직장 경험과 같은 요인은 집단 3 대비 집단 1의 승산비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집단 3 대비 집단 2의 승산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이 잠재집단 1(기혼 여성 배우자)의 높은 취업 취약성과 관련 있는 반면, 잠재집단 2(미혼자녀)에게는 정반대의 연관성을 가졌다. 이는 각 집단이 속해 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시장 경험이 갖고 있는 맥락적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위집단별로 서로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은 비구직 청년들이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잠재집단마다 상이한 내·외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각 하위집단의 구체적 특성과 이들에게 미치는 공변량의 차별적 효과를 세밀하게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 제 5 장

### 결론 : 비구직 청년의 정책과제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세에서 39세 사이 비경제활동 청년들의 현황과 노동시장 이행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심리·사회적 요인에 따라 여러 하위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횡단적 분석 결과, 비구직 청년들은 20대 초중반과 30대 중반에 각각 집중되는 이중봉 형태의 연령 분포를 보였으며, 주로 남성은 20대 초중반, 여성은 혼인·출산의 영향을 받아 30대 중반에 밀집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쉬었음' 상태의 비율이 약 10%에서 20%로 크게 증가한 반면, '육아' 상태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와 구직활동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77%를 차지하는 한편, 구직의사는 있으나 최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은 약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청년이 이전에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년 이상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 졸업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졸업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 등 세 주요 하위집단이 전체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60%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단적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만 26세 이후 비교적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20대 중반까지는 실업 상태를 반복 경험한 후 25~26세 기점에 취업 상태로 안정되는 집단과, 일 경험이 부족해 장기 비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퀀스 및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최소 네 가지 유형의 노동시장 이행 패턴(조기 취업 및 안정형, 반복 이직·취업 후 안정형, 반복 이탈 후 비노동력화형, 번아웃형)이 도출되었고, 이는 향후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식별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잠재집단 분석(LCA)을 통한 실증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일 경험, 심리적 취약성(자존감,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3개 집단 모형(1: 기혼 여성 배우자, 2: 미혼자녀, 3: 취업강점 그룹)이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집단 모두 대학원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고, 직업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반면, 각 하위집단이 구직의사와 구직 준비 등에서 유의미하게 차별화되었는데, 잠재집단 1과 잠재집단 3은 첫 직장 경험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독립 인식이 강한 반면, 잠재집단 2(미혼자녀)는 낮은 취업 경험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았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에 있어서도 미혼자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나이와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취업강점 그룹 대비 취약 그룹의 승산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기혼 배우자 그룹과 미혼자녀 그룹에서 차별적인 효과를 보였다. 미혼자녀 집단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이 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낮은 것과 관련성이 있었고,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오히려 이 집단에 소속될 상대적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더 컸다.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큰 관련성이 없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비규직 청년들이 단순히 개인적 지표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구학적, 심리사회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행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특히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미혼 졸업생 집단과 심리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앞으로 비구직 청년 대상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정책제언

### 1. 청년의 비노동력화에 대한 세밀한 문제 정의 및 진단 필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은 ‘쉬었음’ 상태라는 비경제활동 청년의 일시적 현상만을 포착할 뿐, 이들이 향후 노동시장에 장기간 머무를 위험을 충분히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마치 독감 환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오늘 기침을 한 번 한 사람이 몇이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현상을 판단하려는 행위와 같다. 비경제활동 상태는 단순히 현재의 상태(stock)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개인이 향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것인지 그 흐름(flow)을 종단적으로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비노동력 현상을 단순히 현재의 상태로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전개될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들은 (부가 조사 포함) 비노동력화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비노동력화의 문제상황을 차별적으로 세밀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노동력화란 경기 악화와 같은 외생적 요인뿐 아니라 구직 단념 및 포기 와 같은 내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이다. 취업 상태의 경우,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취업이란 표현은 어색한데 이는 취업 자체가 ‘자발적’ 구직 행위와 ‘양호한’ 경기 상황이 맞물렸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은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못 따라가는 경우로, ‘자발적’ 실업 혹은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의 임금 상승을 위한

단기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과 외부적 환경의 상황이 불일치하였을 때 각각 나타는 결과이다. 반면 비노동력화의 경우, “자발적 쉬었음”은 개인 이슈, “비자발적 쉬었음”은 노동시장의 문제로 단정하기 힘든 이유가 존재하는데, ‘비자발적 쉬었음’에서 시작해 ‘자발적 쉬었음’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되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합적인 진행(progress)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 원인과 독립적으로 비노동력화 상태가 만성염증(chronic inflammation)처럼 지속될 가능성이 비노동력화 현상의 잠재적 위험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시장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비노동력 상태에 있는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진행 단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노동력화를 정책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전망의 비중이 더 크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쉬었음’ 인구가 청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의 쉬었음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향후 전개를 예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비노동력화 우려 집단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목적에서부터 전망을 추정하는 데에 필요한 질문이 각각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50만 쉬었음 인구’와 같이 정책 적용의 초기 진입점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예: 과도한 수요로 인한 비용 상승, 예약제 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정밀한 진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2. 비구직 청년 맞춤형 정책 프로세스의 명료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공통된 제언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와 맞춤형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다. 청년 니트의 경우 많은 연구자가 획일적인 취업 대상자가 아닌,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는 달리, 개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구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에 준거가 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비구직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생애주기적 관점이 반영된 구조화된 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 초기 작업물로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비구직 청년들을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위해, 비경제활동 청년 하위집단의 인구학적 분포 및 일 경험 유무,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횡단적 측면에서 비구직 청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후속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비구직 청년의 이행패턴을 유형화할 수 있는 종단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비구직 청년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를 ‘예방 단계’, ‘장기화 억제 단계’, ‘문제 해소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핵심 대상과 접근 전략을 명료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내포한다. 아직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현재 연구자의 지식 수준에서 제안하는 구체화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후술하고자 한다.

예방적 단계 정책의 핵심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역경(adversity) 극복에 필요한 회복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성년·성인 극초기 피교육자’-‘성인 구직자·근로자’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난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식화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은 대상들에 대한 적절한 선별 방식과 침습적이지 않은 지속적 관리방안 등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현·배상률·성재민(2018)은 청년 니트 생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중등·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졸업 전에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사회로의 이행단계 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청년이 졸업 후 갈피를 못 잡고 쉬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대상과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의 현황 조사를 통해 연계된 인사이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최종 학력 졸업 후 배우자를 가구주로 둔 기혼 여성 집단의 경우, 최근 10년 치 시계열에서 구직의사가 없는 비중이 92%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는 이 집단의 비노동력화가 어느 정도 공고화되어서 정책적 개입의 실효성이 약할 것이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된다.

‘장기화 억제 단계’는 단기적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을 겪는 청년 인구 중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intervention)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규명과 정책효과 평가가 중요 과제로 남아 있다. 예컨대 청년이 어떤 계기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진입하고 탈출하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요인(예: 자기효능감 변화, 우울 수준)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 그리고 코호트별(세대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이론적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현재 논의되는 청년층 대상 구직활동지원금, 청년보장제 등의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은둔형 니트족처럼 드러나지 않는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행정자료 연계, 지역사회 인적망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유민상·김기현·김나영, 2023).

‘문제 해소 단계’는 이미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직업훈련이나 구직촉진수당 등이 정작 정착 지원이 시급한 비경제활동 청년에게는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노혜진(2021)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기존 청년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청년 당사자의 다양한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청년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도 강조된다. 이는 취업, 복지, 정신건강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센터나 지역사회 기반 지원망을 마련하여,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여 은둔·고립 청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청년지원센터(가칭 청년미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초기 조치를 내놓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끝으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문제를 청년 빈곤, 주거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취업 알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인 만큼, 다학제적 연구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미래 정책 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방향이다.

### 3. 비경제활동 관련 조사문항 개선

제2~3장의 문헌연구와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니트 혹은 '쉬었음' 인구와 같이, 정책적 관심이 주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 배상률 · 성재민, 2018) 여전히 공식적인 정의를 채택하여 통계조사 문항에 반영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로 연구자 입장에서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자발적 니트와 비구직 니트를 명확히 구분할 만한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쉬었음' 인구의 경우에도 다음 취업을 하기 전에 충전을 위한 전략적 행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노동시장에서의 연속된 좌절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집단을 직접적으로 분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매년 실시하는 비경제활동 부가조사에 '쉬었음' 사유를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만, 이 문항의 경우 비자발적 '쉬었음'의 유형만을 묻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선택형 문항 설계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시키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구직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경활 인구에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다. 두 문항은 응답을 위해 응답자가 참고해야 하는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최근 1주 대 최근 4주), 구직 단념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택형 문항을 묻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구직비희망자의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전 직장 퇴사기간과 관련하여, 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퇴직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이다. 즉 이전 직장 퇴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이든 5년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비노동력학의 장기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에 손실이 크다. 이 문항의 경우 또 다른 연계문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전 직장 퇴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직장 퇴사 사유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형 문항 설계를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비경제활동 기간이 긴 청년의 경우, 직전 직장과 관련된 경험 정보를 아는 것이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문항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목적을 명료하게 하고, 기존 선택형 문항들의 설계 원리와 이점을 재점검하기를 제안한다.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선택형 문항을 일반 문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설문 절차에는 큰 복잡성을 만들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누락 없는 자료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금재호 · 전용일 · 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 노동부.
- 길현중 · 양승엽 · 박재은(2024), 『니트 위험군 사전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연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수탁과제.
- 김기현 · 배상률 · 성재민(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유민상 · 배정희 · 신동훈 · 박성재 · 정지운(2021), 『니트 등 비경제 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수탁과제.
- 김유빈 · 전주용(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김종욱(2023), 「청년층 ‘쉬었음’ 인구 변화 및 향후 취업 계획 현황」, 『노동리뷰』 5월호, pp.95~98.
- 김지운(2019), 『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남재량(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pp.22~33.
- \_\_\_\_\_(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4월호, pp.39~54.
- 남재량 · 이철인 · 전영준 · 우석진(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 김세움(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혜진(2021),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pp.44~63.
- 유민상 · 김기현 · 김나영(2023),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

- 안 연구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 김기현 · 신동훈(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기획재정부 수탁과제.
- 윤윤규 · 김유빈 · 오선정 · 강동우 · 김세움(2017), 『청년 고용 · 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윤정혜(2024), 「최근 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 특징과 구직 의사」, 『고용동향 브리프』 2024-3호, 한국고용정보원.
- 이병훈 · 김종성(2012), “A Causal Analysis of Youth Inactiveness in the Korean Labor Market,” *Korea Journal* 52(4), pp.139~165.
- 이상준 · 노세리 · 오진욱 · 박지성 · 노성철(2023),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은행(2025),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BOK 이슈노트』 2025-1호.
- 황광훈(2024), 「청년패널조사로 본 2030 켄거루족의 현황 및 특징 : 누가 켄거루족이 되고, 누가 켄거루족에서 벗어나는가?」,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한국고용정보원.
- Collins, L. M. and S. T. Lanza(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Wiley.
- Nylund, K. L., T. Asparouhov and B. O. Muthén(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pp.535~569.
- R Core Team(2024),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_.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www.R-project.org/>>
- Sarda-Espinosa, A.(2019), “Time-Series Clustering in R Using the dtwclust Package,” *The R Journal* 11(1), pp.22~43.

- 기획재정부(2023),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보도자료(2023. 11. 16.).
- 보건복지부(2023), 「고립, 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도자료 (2023. 12. 13.).
- 한국경영자총협회(2024),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 執筆者

- 이정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비구직 청년의 특성과 정책과제

- |            |  |
|------------|--|
| ▪ 발행연월일    | 2025년 6월 26일 인쇄<br>2025년 6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br>☎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5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818-6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818-6